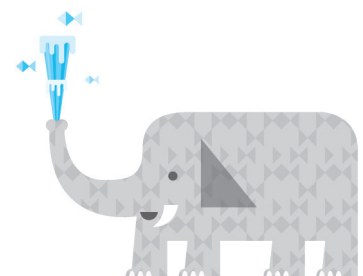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1 삶을, 보다

01. 의미 있는 삶



1 간송 전형필

011쪽

1 ② 2 ⑤ 3 ⑤ 4 ③ 5 ③ 6 오세창

- 이 글은 '간송 전형필'의 업적과 삶을 다룬 전기문이다. 전기문은 실재하였던 인물이 겪은 다양한 사건과 일화 등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글이다.
- 한 해 수확량을 소작인들에게 후하게 분배한 사람은 '전형필'의 부친이다. 이 글에서 '전형필'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다)에서 '전형필'은 스물다섯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친부와 양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백만장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전형필'이 경성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친부와 양부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돌아본 것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전형필'이 상복을 입은 채 대학 4학년을 마쳤다는 것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전형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지키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깊이 고민하였다.
- (라)에서 자신이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전형필'의 모습을 통해, 주변 여건이나 자신의 처지, 주변 인물들의 조언이 '전형필'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전형필'은 서화 전적과 골동을 모으는 일이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을 뿐, 그 가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라)에서 '전형필'은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며 고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형필'의 성품이 신중함을 알 수 있다.
[서술형] '전형필'은 자신의 재산을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스승 고회동', '오세창', '외종형 월탄' 등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훈계를 떠올린다. 그 중 '오세창'은 서화를 모으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노력에 대한 훈계를 해주었다.



2 간송 전형필

013쪽

1 ③ 2 ④ 3 "서화 전적과 골동은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4 ③ 5 ③ 6 ⑤

- '전형필'은 변호사 시험을 볼 것이냐는 '오세창'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집안의 미곡상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오세창'이 "자네 집이 제법 큰 미곡상을 하고 있다니"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마)에서 '오세창'이 "나도 열여섯 어린 나이에 선친을 여의어 그 비통한 마음을 이해하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바)에서 '전형필'이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께 제 장래에 대해 상의드리려고 찾아보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바)에서 '전형필'은 서화 전적을 지키려는 이유를 묻는 '오세창'의 질문에 잠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 '오세창'은 '전형필'에게 서화 전적과 골동을 지키려면 경제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을 뿐, 재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ㄴ은 적절하지 않다. ㄱ, ㄷ, ㄹ은 모두 적절한 설명이다.

- [서술형]** 우리의 서화 전적과 골동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오세창'의 질문에 대해 '전형필'은 "서화 전적과 골동은 조선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오세창'은 ㉠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전형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오세창'의 마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인 '동병상련'이라는 한자 성어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근목자혹'은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괄목상대'는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높을 이르는 말이다. ④ '전전궁궁'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반신반의'는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을 이르는 말이다.

- '오세창'이 "자네가 우리 서화 전적과 골동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키겠다는 건지 알고 싶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오세창'은 서화 전적과 골동을 모으려는 '전형필'의 마음가짐을 알아보기 위해 ㉡과 같이 질문했음을 알 수 있다.

- 고상한 취미로 내세우기 위해 서화 전적과 골동을 모으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서화 전적과 골동을 모으겠다는 '전형필'의 대답에 만족했기 때문에 '오세창'이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3 간송 전형필

015쪽

1 ⑤ 2 ③ 3 ② 4 '천학 매병'을 보면서 수천 마리의 학이 구름을 헤치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5 ① 6 ②

- (사)~(아)에서는 '전형필'이 '신보'에게서 '천학 매병'의 사진을 받아 보고, '천학 매병'을 소유하고 있던 '마에다'와 협상하기까지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



- 2 '마에다'의 장인은 일본 골동품계에 '천학 매병'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가져갔을 뿐 자신이 구매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사)에서 '천학 매병'은 일본인인 '마에다'가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사)에서 '신보'가 "그렇게 아름다운 옥색은 처음 봤습니다."라고 말한 부분과 (아)에서 '전형필'이 '천학 매병'을 보고 "고려가 꿈꾸던 하늘은 이렇게도 청초한 옥색이었던 말인가?"라고 말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④ (사)에서 총독부에서 '천학 매병'을 만 원에 사겠다고 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사)에서 '신보'가 "제가 본 고려청자 가운데 가장 훌륭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3 (사)~(아)에서 '신보'는 '천학 매병'의 사진을 '전형필'에게 보여 주고, '전형필'과 '마에다'의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4 **서술형** (사)에서 '신보'가, 일본인 '마에다'는 수천 마리의 학이 구름을 헤치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으면서 '천학 매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 5 '신보'는 지금까지 거래된 청자 매병 중, 2만 원이라는 거액에 거래된 것이 없으며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반면, '마에다'는 '천학 매병'이 명품 중의 명품이라고 말하면서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다.

- 6 '신보'는 '마에다'가 원하는 가격은 2만 원이지만 이제까지 그 가격으로 팔린 청자 매병이 없을 정도로 거액이기 때문에 흥정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4 간송 전형필 017쪽

1 ② 2 그것(서화 전적과 골동)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했다. 3 ② 4 ④ 5 무서운 승부사 6 ① 7 ④ 8 ③

- 1 '마에다'와 '신보'의 흥정을 '전형필'이 중단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신보'가 '전형필'의 그러한 행동에 실망하거나 화를 낸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자)에서 '천학 매병'을 인수하겠다는 '전형필'의 말에 '마에다'의 눈이 휘둥그레진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③ (차)에서 '신보'는 '천학 매병'을 오통나무 상자에 넣는 '전형필'의 모습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고 하였다. ④ (차)에서 '전형필'은 '마에다' 앞에서 '신보'에게 구전을 건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신보'에게 저녁 자리를 준비하고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⑤ (자)에서 '전형필'이 전날 '천학 매병'의 사진을 보았을 때 이미 '천학 매병'을 명품이라고 판단하고 구입하기로 마음을 굳혔음을 알 수 있다.

- 2 **서술형** (자)를 통해 '전형필'은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취향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 남아야 하는 물건인지 아닌지, 즉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전형필'은 전날 '천학 매병'의 사진을 보고 이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며, 신중하지만 빠르게 결정을 내려 흥정 없이 2만 원에 '천학 매병'을 인수한 것이므로 '전형필'이 성격이 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③ 흥정을 더 지켜보지 않고 바로 '천학 매병'을 인수하는 모습에서 '전형필'의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④ 2만 원이라는 거액에도 불구하고 '전형필'은 '천학 매병'을 인수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⑤ 2만 원이라는 큰돈을 미리 준비해 둔 '전형필'의 모습에서 준비성이 철저함을 알 수 있다.

- 4 '전형필'은 '천학 매병'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명품 청자라고 판단하여 이를 인수하기로 마음을 굳혔는데, 흥정을 하다가 '마에다'가 마음을 바꿀 경우 '천학 매병'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깎지 않고 인수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자)에서 '전형필'로서도 2만 원이라는 큰돈을 하룻 저녁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박물관 공사 대금까지 모아 현금을 마련하였다고 했다. ② '천학 매병'의 흥정과 관련해서 '전형필'이 '마에다'가 일본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③ (차)에서 거래가 성사되면 거간은 2퍼센트 정도의 구전을 받는다고 하였다. 흥정에 성공한다고 해서 구전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⑤ (자)~(차)에서 '전형필'이 '천학 매병'을 되팔겠다고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없다. 또한 '전형필'은 '천학 매병'을 이 땅에 꼭 남아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를 되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5 **서술형** (차)에서 '신보'는 거액이 오가는 큰 거래를 짧은 시간에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전형필'에 대해 '무서운 승부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 6 '전형필'은 흥정이 길어질 경우 자칫 '천학 매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마에다'가 원하는 가격으로 '천학 매병'을 구입하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신보'와 '마에다'의 흥정을 중단시키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헛기침을 한 것이다.

- 7 '전형필'은 '마에다'와 '신보'가 흥정하는 것을 더 지켜보지 않고, '마에다'가 제시한 2만 원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곧바로 거금을 내놓았다. '마에다'와 '신보'는 이러한 '전형필'의 행동이 믿기지 않아 ㉠과 같이 반응한 것이다.

- 8 '전광석화'는 번갯불이나 부싷물의 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재빠른 움직임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속전속결(速戰速決)'은 어떤 일을 빨리 진행하여 빨리 끝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전광석화'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유비무환'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② '설상가상'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④ '풍전등화'는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주마가편'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이다.



죽집게 예상

018~019쪽

1 ③ 2 ⑤ 3 ④ 4 ② 5 ② 6 ② 7 구리거울 8 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전형필'의 말과 행동 등을 전하고 있을 뿐, 그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
- 자신의 많은 재산을 지키면서도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전형필'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우리의 서화 전적과 골동을 일본으로부터 지키기로 결심한다. 이는 개인의 고상한 취미가 아닌 강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결심이라는 점에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전형필'은 조상 대대로 이루어 놓은 많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② (라)에서 '마에다'와 '신보'는 '천학 매병'을 거래하기 위해 가격을 흥정하고 있다. ③ (가)에서 '전형필'이 스물다섯 살의 나이에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마)에서 '전형필'이 '천학 매병'을 구입하기 위해 2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에다'에게 건네주었음을 알 수 있다.
- (마)에서 '전형필'은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자신의 취향보다는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고려한다고 하였다. 이는 서화 전적의 문화유산으로서서의 가치를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전형필'은 조상 대대로 이루어 놓은 큰 재산을 물려받았고, 이를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였다.
- (나)에서 '전형필'에게 '외숙'이 세상의 유혹에 깨끗하려면 옛 선비와 같은 격조와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고(ㄱ), '춘곡'이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서화 전적을 왜놈들에게서 지키는 선비가 되라고 했으며(ㄴ), '외종형님'이 민족의 앞날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으라고(ㄷ) 조언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ㄷ. '전형필'에게 주변 사람들이 해 준 말이 아니라, '전형필'이 생각하는 서화 전적과 골동의 가치이다. ㄴ. 이 글에서 '전형필'에게 독립을 위해 전 재산과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말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이 시에서는 '거울'의 상징성을 통해 치열한 자기 성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③ 이 시에서는 비슷한 시행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④ 이 시에서 '파란 녹'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 부정적인 역사의 단면을 강조하고 있을 뿐, 그와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⑤ 이 시에 대화의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 서술형**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구리거울'을 통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 (가)~(마)의 '전형필'과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모두 일제 강점기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020~021쪽

- 1 ② 2 ④ 3 ③ 4 ③ 5 고상한 취미로 내세우기 위해 서화 전적과 골동을 모으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전형필'은 서화 전적과 골동이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 숙고는 하지만 장고는 하지 않는 성품 7 개인의 이익보다 민족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 (가)를 통해 '전형필'의 아버지는 '전형필'에게 교육 사업에 힘써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유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보기>를 통해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전형필'의 삶은 개인의 노력으로 선조들이 남긴 우리의 문화유산과 문화적 자존심을 지킨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절치부심'이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전형필'이 우리의 서화 전적과 골동을 빼앗아 가는 일본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 글에 '전형필'이 절치부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속전속결'이란 어떤 일을 빨리 진행하여 빨리 끝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마에다'와 '신보'의 흥정을 오래 지켜보지 않고 빠르게 '천학 매병'을 구입한 '전형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하다. ② '유비무환'이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로, 흥정을 하기 전에 이미 돈을 준비해 둔 '전형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하다. ④ '심사숙고'란 깊이 잘 생각함을 이르는 말로, 부친과 양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는 '전형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하다. ⑤ '유일무이'란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음을 이르는 말로, '전형필'은 '천학 매병'이 명품 중의 명품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땅에 반드시 남겨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였다.
- 이 글의 '전형필'은 일본이 우리 문화유산을 빼앗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보기>의 시적 화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 서술형** (나)에서 '전형필'은 '서화 전적과 골동은 조선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을 '오세창'에게 밝히고 있으며, '오세창'은 고상한 취미로 모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전형필'이 뜻을 세우고 있는 것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서술형** (라)에 '전형필'이 숙고(熟考)는 하지만 장고(長考)는 하지 않는 성품을 지녔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전형필'의 성품은 그가 '천학 매병'을 구매하기로 결심하고 빠르게 거래를 끝낼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서술형** '전형필'은 서화 골동을 구입할 때, 자신의 취향이 아닌 서화 전적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였다. 이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을 먼저 생각한 '전형필'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02. 꿈이 있는 삶

1 재능 없는 사람은 없다
025쪽

1 ③ 2 ① 3 “전국 아동 작문집” 4 ② 5 ㄱ: 까치집에 올라가던 애기, ㄴ: ‘까치집과 나’ 6 ④ 7 ① 8 ⑤

- 이 글은 자신에게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던 글쓴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주위의 도움과 인정을 받으며 꿈을 키워 나가는 과정을 담은 자서전이다.
- (가)에서 어린 시절의 글쓴이는 대화할 사람은 물론이고 형제들과도 막역하게 지내지 못하는 외톨이었다고 하였다.
- 서술형** 어린 시절의 글쓴이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국 아동작문집”을 읽게 되면서 책 읽기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대상과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게 된다.
- 글쓴이는 (가)에서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는 남다른 소질은 있다고 하며, (나)~(다)에서 아무런 재능도 없는 것 같았던 자신이 소질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서술형** 글쓴이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난생처음으로 글을 지었다. 그 글의 제목은 ‘까치집과 나’이며, 글쓴이가 까치집에 올라가던 애기를 글감으로 한다.
- 어린 시절 글쓴이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실력이 없었고, 자신에게도 재능이 있는지 생각해 봤지만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 ①과 같이 느낀 것이다.
- ‘독서삼매’란 다른 생각은 전혀 아니하고 오직 책 읽기에만 골몰하는 경지를 이르는 말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책 읽기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글쓴이의 모습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② ‘주경야독’이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곳곳이 공부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일취월장’이란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일석이조’란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을 이르는 말이다. ⑤ ‘형설지공’이란 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이다.
- 자신에게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며 고통스럽게 살던 글쓴이가 “전국 아동 작문집”을 읽음으로써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대상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존감을 느끼게 되었다.

2 재능 없는 사람은 없다
027쪽

1 ⑤ 2 ④ 3 ③ 4 ② 5 글을 썼다기보다 글이 걸어났어요. 6 ⑤ 7 ②

- (라)에서 글쓴이는 ‘외가 형님’의 동네에 사는 친구에게 자신이 쓴 글을 ‘외가 형님’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 동네 친구에게 자신이 쓴 글을 자랑하려고 보여 주지는 않았다.
- (라)~(마)에서 ‘외가 형님’은 글쓴이의 글을 읽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 주면서, 글쓴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조언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마)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한번 결심하면 몰입하는 성격이어서 부지런히 글을 써 나갔다고 말하고 있다.
-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쓴 글을 ‘외가 형님’께 보여 드리고, 실감 나게 잘 썼다는 평을 듣게 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문학은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서술형** “글을 썼다기보다 글이 걸어 나왔어요.”라는 말은 고민하며 생각을 억지로 짜내어 쓴 것이 아니라 글이 술술 잘 써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①과 ④은 글쓴이가 쓴 글에 대해 ‘누나’와 ‘외가 형님’이 해 준 칭찬이다. 이러한 칭찬과 인정은 글쓴이가 글쓰기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여 글을 쓰는 데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어 주었다.
- 글쓴이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자신의 경험을 실감 나게 표현한 글을 쓰고, 자신이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쁨을 느낀다.

3 재능 없는 사람은 없다
029쪽

1 ③ 2 ③ 3 “레미제라블” 4 ① 5 ⑤ 6 ② 7 ② 8 ⑤

- 이 글의 글쓴이는 구어체를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에 대해 독자들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 이 글은 글쓴이가 우연히 글쓰기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던 경험을 담고 있다. 즉,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도 소질이 있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고자 이 글을 쓴 것이다.
- 서술형** (아)에서 글쓴이는 ‘외가 형님’이 구해 준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억울한 생활과 불평등한 세상에 불편함을 느꼈고, 이를 계기로 시인의 감수성이 서서히 개발되었다고 하였다.
- 글쓴이는 자신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글을 쓰면서 ‘외가 형님’에게 가르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책 읽기의 범위도 넓혀 갔다.
| 오답 풀이 | ② 책 읽기의 재미에 빠지면서 자연히 국어를 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부모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했다고 했을 뿐, 편지를 검허하게 받아들이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글쓴이가 하루 일과를 일기로 남겼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글쓴이는 “전국 아동 우수 작품집”을 주문했을 뿐, 자신의 글을 실기 위해 글을 쓰지는 않았다.



- 5 (아)에서 글쓴이는 공부란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극대화시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 사는 훈훈한 사회를 일구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 6 글쓴이는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선생님'이 잘 쓴 글이라고 칭찬해 주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 7 ㉠은 학교 운동장에서 일제히 한 시간 동안 작문하는 날로, 글쓰기에 대한 소질을 발견한 글쓴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 8 ㉡의 뒤에 이어지는 '선생님'의 말을 고려할 때, 평소 공부를 못 하던 글쓴이가 썼다고 보기에는 매우 잘 쓴 글이어서 ㉠과 같이 묻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족집게 예상 030~031쪽

1 ④ 2 ② 3 ④ 4 외가 형님 5 ④ 6 ④ 7 ⑤ 8 글쓰기

- 1 이 글은 글쓴이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 2 (나)를 통해 글쓴이가 처음으로 '까치집과 나'라는 글을 써 내려가며 까치집에 손이 닿을락 말락 할 때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머릿통을 쥐어짜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음을 알 수 있다.
- 3 (라)에서 글쓴이가 "부모님도 모르고, 누님들도 그렇게 많이 쓰는 줄은 몰랐을 거예요."라고 한 것은 글쓴이가 글쓰기에 몰입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주변 사람들 모르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 오답 풀이 !** ① 공부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통해 공부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글쓰기에 대한 재능을 발견한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독자 자신의 재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③ 부모님께 핀잔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한 글쓴이의 모습을 통해 칭찬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⑤ 결국 재능을 찾아낸 글쓴이의 모습을 통해 재능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4 **서술형** 글쓴이의 '외가 형님'은 글쓴이가 쓴 글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 글쓴이가 글쓰기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쓴 글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을 해 줌으로써 글쓴이가 글쓰기 재능을 키워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 5 (바)에서 글쓴이는 공부의 의미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이 시인이 된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였다. 즉, ㉠은 글을 쓰는 재능을 극대화시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 사는 훈훈한 사회를 일구어 가는 시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 6 이 글의 글쓴이는 케냐인 의사와의 일화를 통해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즉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 7 '제대병'의 질문에 대한 글쓴이의 대답과 케냐인 의사와의 일화를 통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열정이 생기게 하는 일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 8 **서술형** (가)~(바)의 글쓴이는 자신의 글쓰기 재능을 발견한 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꾸준히 글을 써 나갔고, 그 결과 시인이 되었다. 따라서 (가)~(바)의 글쓴이는 ㉡에 대해 '글쓰기'라고 대답할 것이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032~033쪽

1 ② 2 ④ 3 ⑤ 4 ④ 5 재능 없는 사람은 없다(사람에게는 누구나 특별한 재능과 소질이 있다). 6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7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시인의 감수성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 1 (나)를 통해 글쓴이는 우연히 집에서 발견한 "전국 아동 작문집"을 읽으면서 독서와 글쓰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글쓴이는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찾기 위해 깊이 고민하였으며, 재능을 발견한 뒤에는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글쓴이는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3 (사)에 드러난 공부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고려할 때, 이 글의 글쓴이는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있는 <보기>의 안과 의사에 대해 ⑤와 같이 평가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4 (라)에서 글쓴이는 문학이란 누가 가르쳐 주는 문장 투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겪은 것을 그대로 실감 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학생에게 ④와 같은 조언을 해 줄 것이다.
- 5 **서술형** 이 글의 글쓴이는 재능이 없다고 여겼던 자신에게서 글쓰기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끝에 시인이 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얻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사람에게는 누구나 특별한 재능과 소질이 있다).'는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 6 **서술형** 글쓴이는 '외가 형님'의 인정과 조언 그리고 '선생님'의 칭찬으로 인해 글쓰기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책 읽기의 범위를 넓히는 등 자신의 재능을 키워 나가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 7 **서술형** '천군만마'는 아주 많은 수의 군사와 군마라는 뜻으로 글쓴이는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생활과 불평등한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서히 시인의 감수성이 개발되었다고 하였다.



03. 미리 쓰는 자서전



미리 쓰는 자서전

036~037쪽

- 1 ① 2 ④ 3 ⑤ 4 ⑤ 5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6 ④ 7 ④ 8 ㄱ: 불안감, ㄴ: 리더십 9 ① 10 ③

- 이 글은 자서전으로, 글쓴이가 실제 살아온 삶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며 (ㄱ),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 등을 진솔하게 고백한다(ㄴ).
- 이 글은 글쓴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과 그 속에서 하게 된 생각들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을 뿐, 친구들과 면담한 내용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 (마)에서 글쓴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한 친구 두 명과 같은 반이 되었으며, 친구들과 다투어 잠시 멀어졌지만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성격을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친구들과 헤어져 외로움을 느꼈다는 내용은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어렸을 적 성격, 자신의 단점을 고치게 된 사건, 자신의 꿈,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위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서 글쓴이는 4살 때 자신이 고집이 센 아이였다고 말하고 있다. ②, ④ (사)에서 글쓴이는 오랫동안 교사를 꿈꾸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③ (마)에서 글쓴이는 친구들과 다투었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 서술형** 6살 때 바다로 소풍을 갔던 글쓴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맨발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발을 다치고 만다. 이 일을 계기로 글쓴이는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 (마)에서 친구들은 글쓴이의 성격 중 고쳐야 할 부분을 알려 주기 위해 일부러 글쓴이를 피해 다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글쓴이는 친구의 소중함을 느끼고 잘못이 있다면 빨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바)에는 글쓴이가 6학년 때 반장·회장 선거에 나가 부회장에 당선되었던 경험이 드러나 있다. 제시된 자료 중, 글쓴이의 6학년 때 경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부회장 임명장 사진이다.
- 서술형** (바)에서 용기가 없어 부회장 선거에 나가지 못하던 글쓴이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부회장이 되었으며, 부회장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도 생기고 많은 사람 앞에서도 떨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 (사)에서 글쓴이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고 하였다.

- 이 글과 같은 자서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계획하기(ㄴ) → 구성 방식 정하기(ㄷ) → 표현 방법 찾기(ㄷ) → 자서전 쓰기(ㄱ)'의 과정에 따라 쓴다.



족집게 예상

038~039쪽

- 1 ②, ③ 2 ③ 3 ③ 4 ③ 5 ④ 6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 7 ⑤ 8 ④ 9 연극 연출가

- 이 글은 글쓴이가 실제 살아온 삶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자서전이다. 자서전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며,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한다.
 - 자서전은 자신의 삶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글로, 자서전을 쓰기 위해 글의 구성 방식을 정할 때는 자신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보기>는 글쓴이가 6살 때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은 일화이다. (다)의 마지막 문장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글쓴이를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로 만들어 준 사건이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보기>는 (다)의 뒤에 덧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 (마)에서 글쓴이는 톨스토이가 “사랑이란 자기희생이다. 이것은 우연에 의지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바람을 인상 깊게 표현하였다.
-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 속담은 활용되지 않았다. ② 글쓴이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내용만 있을 뿐, 자신과 친구들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 글쓴이의 태몽이 드러나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⑤ 이 글에 글쓴이가 존경하는 위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다)에서 글쓴이가 유치원 시절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내용만 제시되고 있을 뿐, 글쓴이에 대한 담임 선생님의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서술형** 글쓴이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자신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하고 싶어졌다고 하였다.
- 이 글과 같은 자서전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자신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 글은 글쓴이의 삶을, 주요 사건(7살 때 구연동화 대회와 최근 연극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서술형** 중학교 1학년 때 연극을 보면서 설렘을 느낀 뒤 바로 연극반 활동을 시작한 글쓴이는 앞으로 ‘연극 연출가’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040~041쪽

1 ① 2 ⑤ 3 ② 4 ⑤ 5 ⑤ 6 이 글은 자신의 삶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 반면, <보기>는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7 6학년 2학기 때 부회장 활동을 하게 되었다.

- 1 자서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읽을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서전처럼 자신의 삶을 사실적으로 쓰지만 글쓴이 혼자 읽을 목적으로 쓰는 것은 일기이다.
- 2 (나)에서 글쓴이는 유치원 시절 바다에서 발을 다치면서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경험을 말하고 있을 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경험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 3 글쓴이는 4학년 때 친구들과 다투었던 경험을 통해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고(ㄱ), 자신의 단점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ㄷ). 또한 6학년 때 부회장 선거에 나가는 것을 망설이던 글쓴이가 부회장 선거에 나가 당선될 수 있게 친구가 추천해 주었다(ㄹ).

| 오답 풀이 | ㄴ. (마)에서 글쓴이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교사가 되겠다는 꿈 대신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ㄴ. 6살 때 바다를 갔다가 발을 다쳤던 글쓴이는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 4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땀이 생긴다”라는 속담은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됨을 이르는 말로,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는 글쓴이의 깨달음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②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뽀이 난다”는 되지 못한 것이 엇나가는 짓만 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잘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잠재성이 엿보임을 이르는 말이다. ④ “안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겉으로는 안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딴 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다 차림을 이르는 말이다.

- 5 (마)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교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직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의 글쓴이는 6살 때 소풍을 갔던 경험,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과 다투었던 경험 등에서 깨달은 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② (다)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단점을 고치게 된 사건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③ (라)에서 글쓴이는 부회장에 당선되었음을 보여 주는 임명장을 함께 제시하여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마)에서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해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6 **서술형** 자서전은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시간 순서대로 구성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 글은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고 있으나 <보기>는 자신을 설레게 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 7 **서술형** (라)에서 글쓴이는 6학년 2학기 때 부회장 활동을 하게 되면서 리더십도 생기고 많은 사람 앞에서 떨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선택 학습

042쪽

선택 01 1 ⑤ 2 ④

선택 02 18. 일생 동안 유지되는 멋진 우정 2 ④

선택 01

- 1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이름과 연락처(ㄱ),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ㄷ), 미래의 자신의 모습과 관련된 그림(ㄴ)을 담고 있다.
- 2 (가)는 우주인이 되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나)는 여행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밝히고 있다.

선택 02

- 1 **서술형** 이 모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친구들과의 관계이다. 따라서 이 모둠에서 구입할 가치는 ‘8. 일생 동안 유지되는 멋진 우정’이라고 할 수 있다.
- 2 ‘7. 경제적 부유함’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이유로 이 가치를 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단원 평가

043~045쪽

1 ③ 2 ③ 3 ④ 4 ⑤ 5 ② 6 ④ 7 자신에게 아무런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8 ② 9 ② 10 ④ 11 ⑤

- 1 (다)에서 ‘오세창’의 말을 통해 서화 전적과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은 많지만 뜻을 갖고 모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를 통해 ‘전형필’은 스물다섯 나이에 큰 재산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재산이 많을수록 총독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 ④ (마)를 통해 ‘전형필’이 전 날 ‘천학 매병’의 사진을 보고 이미 ‘천학 매병’을 인수하기로 마음을 굳혔음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전형필’이 ‘천학 매병’을 인수하겠다고 말하자 ‘마에다’와 ‘신보’는 깜짝 놀라고 있다.



2 (다)에서 “자네는 조선의 자존심이기에 지키겠다고 하니,”라고 한 ‘오세창’의 말을 통해 ‘전형필’이 고민 끝에 우리의 서화 전적과 골동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전형필’이 ‘마에다’에게서 ‘천학 매병’을 구입한 것은, ‘천학 매병’이 뛰어난 우리의 문화유산이기에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 일본인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글쓴이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재능을 키워 나가 시인이 되었다고 하였지만 그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서술한 것은 아니다.

5 (다)를 통해 글쓴이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에 난생처음 글을 지어 봤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마)에서 ‘선생님’은 글쓴이가 지은 글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자신이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글쓰기에 몰입하여 시인이 되었다. ④ (라)에서 글쓴이는 ‘외가 형님’의 조언과 평가를 통해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전국 아동 작문집”을 읽고 글쓰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6 (바)에서 글쓴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만의 재능과 소질이 있다고 하며(ㄴ), 공부는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극대화시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 사는 훈훈한 사회를 일구어 가는 것이라는(ㄷ)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7 **| 서술형 |** 글쓴이는 자신에게도 재능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지만, 아무런 재능이 없다는 생각에 ㉠과 같이 느낀 것이다.

8 이 글에는 글쓴이가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고 결심했던 사건, 자신의 단점을 고쳐야겠다고 결심했던 사건이 드러나 있다. 이는 글쓴이 자신을 바꾼 사건들이므로 ㉡와 같은 제목이 가장 알맞다.

9 (나)에서 글쓴이는 4살 때 유치원에 입학하였으나, 고집이 센 편이어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2000년 6월 9일에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③ (다)에 6살 때 바다로 소풍을 갔다가 발을 다쳐 피가 난 사건이 드러나 있다. ④ (라)에 친구의 추천으로 간간 부회장 선거에서 부회장에 당선된 경험이 드러나 있다. ⑤ (마)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은 글쓴이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10 ㉠은 부회장 임명장(시각 자료)으로, 글쓴이가 부회장에 임명된 사건을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11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함께, 당시의 글쓴이의 느낌과 생각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글쓴이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실제 삶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마)에서 자신의 오랜 꿈은 교사였으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③ 글쓴이는 자신의 성격과 단점 등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 ④ (마)에서 톨스토이의 명언을 활용하여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2 문학이 주는 선물

01. 마음을 울리는 노래



시조 두 편

051쪽

1 임에 대한 그리움 2 ①, ④ 3 ④ 4 ① 5 ② 6 ⑤
7 ①, ③

1 **| 서술형 |** (가)와 (나)의 시적 화자는 공통적으로 부재하는 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다.

2 (가)는 ‘서리서리, 굵이굵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으며, 추상적인 시간 개념인 ‘밤’을 자르고 펼 수 있는 사물처럼 표현하고 있다.

3 (가)의 시적 화자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잘라 내어 ‘춘풍 이불 안’에 넣었다가 그리운 임이 오면 이를 펼쳐 사랑하는 임과 오랫동안 함께하고자 한다.

4 (나)의 시적 화자는 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임이 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임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어리석다(어리다)’고 책망하며 한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c.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느 임 오리마는’을 통해 시적 화자가 임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d. 임을 원망하거나 임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다.

5 (가)의 시적 화자에게 ㉠은 사랑하는 임과 함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간이지만, 그만큼 짧게 느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

6 (나)의 시적 화자는 종장에서 잎이 떨어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이와 같이 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자신을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다.

7 현재 시적 화자가 있는 ‘만중운산’은 ‘첩첩이 겹쳐 구름이 덮인 산’을 의미하며, 시적 화자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족집게 예상

052~053쪽

1 ⑤ 2 ① 3 만중운산 4 임이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5 ⑤ 6 ② 7 ① 8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9 ② 10 소극적인 태도로 ‘너’를 기다리고만 있던 시적 화자는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라는 시행 이후 적극적인 태도로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11 ⑤



1 (가)와 (나)는 시조로, 시조는 고려 말기부터 발달하여 지금까지도 창작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이다.

2 (가)와 (나)의 시적 화자는 모두 입과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사랑하는 입을 그리워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나)의 시적 화자가 '만중운산'이라는 자연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속세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가)의 시적 화자 역시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나)의 시적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가)와 (나)에서 입이 부재한 상황을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적 화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3 **서술형** (나)에서 '만중운산'은 '점점이 겹쳐 구름이 덮인 산'이라는 의미로, 입과 시적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상징한다.

4 **서술형** (나)의 시적 화자는 입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입을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를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5 ㉠의 '어룬 입 오신 날 밤'은 사랑하는 입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다.

6 '마음이 어리다'는 '마음이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문맥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된 일을 의미한다.

7 앞의 (가), (나)와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모두 사랑하는 대상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가), (나)와 이 시에는 모두 부조리한 현실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의 시적 화자는 입이 왔을 때를 가정하여 그때 보관해 둔 시간을 꺼내겠다고 하고 있을 뿐, 입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나)의 시적 화자는 입이 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또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대상과의 만남을 확신하고는 있지만, 초조함과 설렘의 감정만 나타나고 있을 뿐, 이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가), (나)와 이 시 모두 변해 버린 대상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 (나)와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모두 현재 부재한 대상을 그리워하고만 있을 뿐, 대상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지는 않다.

8 **서술형** ㉠은 사소한 소리나 움직임도 '너'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시적 화자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비슷한 발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나)의 종장이다.

9 '나는 너에게 간다', '나는 너에게 가고',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와 같이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너'와의 만남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10 **서술형**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대상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다가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라는 시행 이후 적극적인 태도로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11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너'의 의미는 시적 화자가 염원하는 자유, 민주, 평화, 정의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054~055쪽

1 ④ 2 ④ 3 ① 4 ② 5 ①, ⑤ 6 ④ 7 ③ 8 동짓달 기나긴 밤 9 사랑하는 사람(대상)을 그리워하는 정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다. 10 만중운산 / 시적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1 (가)와 (나)는 시조, (다)는 자유시로 현재까지도 창작되고 있는 갈래이다(a). 시조는 외형물로 운율이 겹으로 드러나며(c), 형식적 제약을 받는 시조와 달리 자유시는 형식적 제약이 적다(d).

2 (나)의 시적 화자는 입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입이 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단지 기다리기만 할 뿐 입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다.

3 (가)~(다)의 시적 화자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오래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의미하는 한자성어로, (가)~(다)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부화뇌동(附和雷同)'은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의미한다. ③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의미한다. ④ '우공이산(愚公移山)'은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이다. ⑤ '반포지효(反哺之孝)'는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이다.

4 '어룬 입'은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5 (나)의 시적 화자는 '만중운산'에서 입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입이 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입을 기다리는 자신을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다.

6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점은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너'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④의 '선미'가 반영론적 관점에서 감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절대주의적 관점(내재적 관점)에서 시에 나타난 표현이나 시적 화자의 정서에 주목하여 감상하였다. ③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품에 표현된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과 작가의 창작 의도에 주목하여 감상하였다. ⑤ 효용론적 관점에서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감상하였다.

7 ㉠은 간절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너'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드러나는 시구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와 만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8 **서술형** ㉠은 입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시간이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시구는 '동짓달 기나긴 밤'으로, 입이 부재하는 부정적인 시간이다.

9 **서술형** 조선 시대의 시조인 (가), (나)와 현대에 창작된 자유



시인 (다)에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는데,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다.

- 10 서술형** '은하수'는 <보기>의 시적 화자와 '그대'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나)의 '만중운산' 역시 시적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알아 두기



문병란의 '직녀에게'

- 주제: 소중한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
- 해제: 견우와 직녀의 전설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의 만남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견우(화자)가 직녀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02.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

1 아우를 위하여

059쪽

1 ③ 2 ⑤ 3 ② 4 ③ 5 ④ 6 진보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 7 ①

- 이 글은 서간체 형식의 소설로, 서간체 형식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보다는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데 더 효과적이다. 또한 편지는 개인의 감정이 진솔하게 드러나는 글이므로 이야기에 신뢰감을 주고,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주어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 (가)의 “뭔가 네게 유익하고 힘이 될 말을 써 보내고 싶다.”라는 문장을 통해 ‘나’가 ‘아우’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 (다)에서 노깅 속에서의 기억은 상상을 악화시켜 ‘나’를 형편없는 겁쟁이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⑤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④ (다)의 “어떤 대상이든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의 본질을 알아챈 뒤, 훨씬 수준 높은 도전 방법을 취하면 반드시 이긴다.”를 통해 두려움의 대상인 노깅이 극복할 수 있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 ‘나’는 충알을 찾아 아이들의 찬탄과 선망을 혼자 독차지할 생각으로 아이들이 두려워하여 들어가지 않는 노깅에 홀로 들어가게 된다.
- (다)의 “우리를 위압하고 공포로써 속박하는 ~ 방법을 취하면 반드시 이긴다.”를 통해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c), 대상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e)은 (다)에 나타난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과 거리가 멀다.
- 서술형** 어른이 된 ‘나’는 유년 시절 ‘그이’를 사랑하게 되면서 진보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배웠다고 하였다.

- ‘나’는 노깅에서 무심코 잡은 뼈다귀를 본 후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2 아우를 위하여

061쪽

1 ④ 2 ②, ④ 3 ① 4 ⑤ 5 각목

- ‘석환이’는 자신의 마음대로 씨름 대회를 열고 학급의 임원을 임명하는 ‘영래’에게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마)에서 ‘석환이’가 씨름 대회에 반대하자 ‘반 아이들’은 ‘석환이’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② (라)에서 ‘나’는 전학 간 서울 학교의 아이들이 질이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을 뿐,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담임 선생님’은 ‘영래’에게 권한을 위임한 채 아이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⑤ ‘영래’는 ‘담임 선생님’이 지시한 자치회를 하는 대신 오전에 씨름 대회를 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였다.
- [A]는 ‘영래’가 폭력을 통해 학급의 권력을 장악한 후 절차를 무시한 채 학급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당대의 정치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 오답 풀이 ! ① ‘영래’는 ‘반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학급 임원을 선출하고 있다. ③ ‘영래’는 자치회를 진행하는 의장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직 반장이 된 것은 아니다. ⑤ ‘영래’가 폭력으로 아이들을 위협하면서 제멋대로 임원을 선출하는 것일 뿐, 강력한 리더십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우며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 ‘나’는 교실의 열악한 환경과 질이 좋지 않은 학교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담임 선생님’ 때문에 전학 온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의 교육에는 무관심한 채 톡하면 자습 시간을 주고 하루 종일 밖으로 나돌아 다녔기 때문에 ‘나’는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담임 선생님’이 ‘영래’를 자치회를 진행할 의장으로 임명한 것은 반장이었던 ‘석환이’의 통솔력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학생들을 편애한 것은 아니다. ② 학생들의 교육에 무관심한 ‘담임 선생님’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을 뿐, 특별히 ‘나’에게 무관심하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학생들의 교육에 무관심하여 자습만을 시키는 것이지, 통솔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담임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의 수업 능력이 어떠한지는 이 글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 서술형** ‘영래’는 ‘중하’에게 ‘반 아이들’이 수틀리게 놀면 ‘각목’으로 때리라고 하고 있다. ‘각목’은 ‘영래 패거리’가 ‘반 아이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도구이므로, ‘폭력과 억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 아우를 위하여

063쪽

1 ④ 2 ④ 3 ② 4 ⑥: 민중을 폭압하는 정치 권력자들, ⑥: 부당한 현실에 무관심한 지식인들

- 1 '영래'가 자기 마음대로 학급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나'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가 "바보 같은 놈들이 설쳐 대는 꼴을 보니 나도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그 애들의 노는 꼴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려 애썼다."라고 말한 부분을 고려할 때, '나'가 '영래'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나'는 '영래'의 횡포에 대해 방관하고만 있을 뿐 저항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수용하면서 체념한 것은 아니다. ⑤ '나'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만 나타나 있을 뿐, 미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 있지 않다.

- 2 '영래'는 모금한 돈이 남은 것을 시인한 뒤 그것을 다음에 쓰려고 남겨 두었다고 둘러대는 한편, 아이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

- 3 두 번 모두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은 '석환이'와 '영래' 둘 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이때까지만 해도 '영래'의 영향력이 반 전체에 미칠 정도로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4 **서술형** 소설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영래'는 민중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정치 권력자들'을 상징하며, '좀 엉리한 애들'은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무관심한 '지식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 아우를 위하여

065쪽

1 ③ 2 ④ 3 ⑤ 4 ④, ⑤

- 1 '반 아이들'이 아니라 '나'가 학급 분위기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2 '교생 선생님'은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강조하고, 지식인이거나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은 여럿이 함께 고쳐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 오답 풀이 | a. "혼자서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럿이서 고쳐 줘야 해요."라는 '교생 선생님'의 말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 '교생 선생님'은 "더구나 공부를 잘한다거나 집안 형편이 좋은 학생은 그렇지 못한 다른 친구들께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남보다 우월한 사람일수록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을 뿐,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 3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교생 선생님' 앞에서 자기보다 못한 '영래'의 구령에 맞춰 고개를 숙이는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 것이다.

- 4 '영래'에 대한 '나'의 질문에 '교생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하는 이유는 '교생 선생님'이 '영래'의 횡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나'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이다.

| 오답 풀이 | ① '교생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 본 것은, '나'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주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 위함이지, 당황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②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교생 선생님'이 고민하는 모습만 나타나 있을 뿐, '영래'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③ '교생 선생님'이 '나'가 질문한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5 아우를 위하여

068쪽

1 ② 2 ④ 3 종잇조각(종이쪽지) 4 ① 5 ④ 6 ⑤ 7 ③

- 1 '영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교생 선생님'의 질문에 자신만만하게 벌을 주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즉, '영래'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생 선생님'은 여럿이서 의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주적인 사고를, '영래'는 반을 위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 2 이 글에서 '영래 패거리'가 '반 아이들'의 잘못을 '선생님'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며, '반 아이들' 역시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영래 패거리'는 '교생 선생님'을 점점 미워하면서 '교생 선생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일삼았다. (파)에서 '나'와 '반 아이들'은 '교생 선생님'은 좋은 분이고 '교생 선생님'을 욕하는 종이쪽지를 돌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② "요전에 동열이를 때린 것두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학급비를 거둬다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맘대로 쓴 건 잘못이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한 번도 자치회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맘대로 한 건 더욱 잘못이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3 **서술형** '나'는 '교생 선생님'을 모욕하는 내용의 '종잇조각(종이쪽지)'을 보고 '영래 패거리'에 저항해야겠다고 결심한다.

- 4 '영래 패거리'에 맞선 '나'의 저항에 '반 아이들'이 동조하며 '나'의 편을 들고 있다.

- 5 '나'는 '영래 패거리'에 저항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교생 선생님'의 그림이 그려진 종잇조각을 책갈피에 끼워 놓은 채 앞으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설렘'이란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림을 의미하는 말로, '영래 패거리'에게 저항하기로 결심하고 그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나'의 심리와는 거리가 있다. ③ '나'는 '영래 패거리'에게 대항할 시간을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6 ㉠은 '나'가 '영래 패거리'에게 굴복하며 지내 온 시간 동안 느꼈던 수치심이 해소되었다는 의미이다.
- 7 ㉡에서 '영래'는 평소와 다른 아이들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으며, ㉢에서 우리, 즉 '나'와 '반 아이들'은 의외의 결과에 놀라고 있다.

6 **아우를 위하여**

1 ㉡, ㉢
2 안방들 속의 사생활
3 ㉡
4 ㉢

069쪽

- 1 (거)에서 '나'는 '아우'에게 공동체적인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여럿이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⑤ 여럿의 윤리적 무관심으로 정의가 밝히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 희생하는 삶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 **서술형** 작가는 '저 깊고 수많은 안방들 속의 사생활'이라는 표현을 통해 세상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의 안일만 도모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 3 ㉠은 노깅에 대한 '나'의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한다.
- 4 "그분에 대한 자각이 왔을 때 아직 가망은 있는 게 아니겠지."라는 말은 '그이'의 존재를 잊지 않으면 언제고 '그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즉,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낸 것이다.

죽집게 예상

1 ㉠
2 ㉡
3 뼈다귀
4 ㉡
5 ㉢
6 ㉢
7 ㉠

070~071쪽

- 1 (다)에서 '반 아이들'은 '병아리 선생님(교생 선생님)'을 좋아하며,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② (마)에서 '나'의 악몽의 비밀을 들은 '교생 선생님'이 '나'에게 건넨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중하'가 각목으로 아이들을 위협하는 모습이나, (다)에서 '나'의 먹살을 잡고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리는 모습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석환이'가 '영래'에게 자기 마음대로 학급 간부를 지명하는 것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⑤ (다)와 (라)에서 '반 아이들'은 '영래 패거리'에게 저항하고 있는 '나'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
- 2 (나)에서 '나'는 '영래 패거리'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가 중외조각 사건을 계기로 '영래 패거리'에 저항하여 '영래 패거리'로부터 사과를 받아낸다.
- 3 **서술형** '나'는 노깅에서 나뭇조각인 줄 알고 집어 들었던 '뼈다귀' 때문에 기절하였다.

- 4 (마)에서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교생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노깅에 다시 들어가 두려움에 직접 맞섬으로써 노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 5 ㉠은 '영래 패거리'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일 뿐, 감춰졌던 폭력성이 표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6 (가)~(마)의 '나'는 처음에는 '영래 패거리'의 폭압을 방관하였지만 나중에는 그들에 맞서며 저항한다. 그러나 이 글의 '나'는 '석대'의 질서에 순응하고 있다.
- 7 '석대'는 '나'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거나 강제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특전에 길들여진 '나'는 '석대'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고 있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 ㉡
2 ㉡
3 ㉢
4 ㉡
5 학급비를 거두어 마음대로 썼다. / '동열이'를 때렸다. / 한 번도 자치회에서 물어보지 않고 학급 일을 마음대로 결정했다.
6 (가)~(라)의 '나'는 '영래 패거리'의 폭력과 횡포에 저항하여 승리한다. 그러나 (마)의 '나'는 '석대'의 질서에 길들여져 자발적으로 충성한다.
7 자유와 합리

072~073쪽

- 1 '영래'는 '중하'에게 종이쪽지를 찢으라고 하고, '중하'는 결국 '나'에게 사과를 한다. 이 과정에서 '영래'의 반발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2 (다)에서 '영래'에 대해 '반 아이들'이 비판하는 장면을 통해 '영래'가 폭압적인 권력자를 상징함을 짐작할 수 있다(ㄴ). 또한 (가)에서 '교생 선생님'이 '나'에게 충고하는 장면을 통해, '교생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정의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지도자적 인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ㄷ).
- 3 (가)에서 '교생 선생님'은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여럿이 고쳐 줘야 하며, 모른 채하면 모두 다 나쁜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의에 순응하고 있는 (마)의 '나'에게 ㉢과 같은 조언을 할 수 있다.
- 4 '쓸쓸한 찬바람'은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알기는 어렵다.
- 5 **서술형** (다)에서 '반 아이들'은 그동안 '영래 패거리'가 잘못했던 일을 지적하고 있다.
- 6 **서술형** (가)~(라)의 '나'는 '반 아이들'과 함께 '영래 패거리'에 저항하고 결국 사과를 받아 내며 '영래 패거리'를 굴복시키지만, (마)의 '나'는 '석대'의 질서에 길들여져 자발적으로 순응한다.
- 7 **서술형** (라)의 '그이'는 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 민주주의, 정의' 등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마)에서 찾으면 '자유와 합리'이다.



03.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나무를 심은 사람

077쪽

1 ① 2 ③ 3 마을의 부활 4 ② 5 죽어 가는 땅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6 ④

- (가)를 통해 '나'가 여행한 지역은 마실 물조차 없는 황폐한 산악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엘제아르 부피에'가 말이 거의 없었다고 했지만, 소심한 성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바)에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나'가 '엘제아르 부피에'를 찾아갔을 때, '그'는 여전히 나무를 심고 있었으며 황무지였던 그곳은 물이 흐르는 숲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나'는 '엘제아르 부피에'가 도토리를 골라내는 일을 도우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⑤ (마)에서 30년 후 떡갈나무 1만 그루가 생기겠다고 말한 사람은 '엘제아르 부피에'가 아니라 '나'이다.
- '양치기 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황무지에서 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마을 사람들'은 건디기 힘든 환경으로 인해서로 경쟁하며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반면에, '양치기 노인'은 주어진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다. ⑤ '양치기 노인'은 홀로 황무지에 떡갈나무를 심어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 서술형** '나'는 잎이 무성한 보리수가 마을의 부활을 상징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 정부는 황무지에서 물이 흐르는 숲으로 변한 베르공 마을을 나라의 관리 아래에 두고, 나무를 베어 숲을 굽는 일을 금지했다.
- 서술형** (마)에서 '엘제아르 부피에'는 죽어 가는 땅을 살리고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 (자)에서 보듯, 황무지를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킨 '엘제아르 부피에'의 삶에 대하여 '나'는 위대함을 느끼게 된다.



족집게 예상

078~079쪽

1 ② 2 ③ 3 ① 4 '엘제아르 부피에'는 위대한 혼과 고결한 인격을 지녔다. 5 인간의 힘이란 참으로 놀랍다. 6 ⑤ 7 ④ 8 ⑤ 9 ②

- '나'는 '엘제아르 부피에'의 도움으로 황무지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물과 음식, 잠자리를 얻었다.
- (다)를 통해 '엘제아르 부피에'는 평범한 농부였으나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자 외딴 황무지에 홀로 들어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에서 나무를 심기 전의 마을에는 집도 사람도 적었다고 하

였고, (마)에서 나무를 심은 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였다.

- 서술형** (마)에서 '나'는 황무지를 풍요로운 땅으로 일군 '엘제아르 부피에'를 위대한 혼과 고결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서술형** 베르공 마을을 다시 방문한 '나'는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황무지를 풍요로운 땅으로 이룩해 낼 수 있었다는 것에서, 인간의 힘이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깨달았다.
- '엘제아르 부피에'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의 선을 위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노력했던 인물이므로 ⑤와 같은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①은 '엘제아르 부피에' 자신이 앞으로도 계속 나무를 심어 훨씬 많은 나무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1만 그루의 나무는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낸 말이다. 이를 통해 '엘제아르 부피에'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엘제아르 부피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평생 나무를 심음으로써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트레버'는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갖고 기부와 자선 사업을 통해 이들을 돕고자 하였다.
- 노숙자들은 '트레버'의 선물보다는 그의 따뜻한 관심과 우정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080~081쪽

1 ④ 2 ⑤ 3 ① 4 ① 5 ④ 6 '나'는 잎이 무성한 보리수가 마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음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다. 7 '엘제아르 부피에'가 나무를 심기 전 마을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며, 희망도 없이 살았다. 반면 나무를 심은 후에는 공동 작업을 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8 한 사람의 노력으로 시작된 활동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 (라)를 통해 '엘제아르 부피에'가 죽어 가는 땅을 살리고자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엘제아르 부피에'가 아들과 아내를 잃은 것은 맞지만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 '엘제아르 부피에'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황무지를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었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학생에게 ⑤와 같이 조언해 줄 수 있다.
- 과거의 베르공 마을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희망이 없었으며 황무지였고 집과 사람이 적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활기와 생명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늘었으며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는 등 희망이 존재하는 곳으로 변하였다.
- ①은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한 사람의 작지만 끊임없는 노력이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 내었음을 의미한다.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는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속담으로, ㉠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②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는 더 바스락거리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다는 뜻으로,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한다”는 아무리 급하다 하여도 꼭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일을 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는 상대방이 말을 고맙게 하면 제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해 주게 된다는 말이다.

- 5 마을 사람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 이기심에 가득 차서 모든 것을 놓고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다. 반면 ‘엘제아르 부피에’는 죽어가는 땅을 살리기 위해 나무를 심으며 살아가고 있다.
- 6 **서술형** ‘나’는 황무지였던 마을에 심어져 있는 ‘보리수’가 마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았다.
- 7 **서술형** ‘엘제아르 부피에’가 나무를 심기 전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미워하며 희망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엘제아르 부피에’가 나무를 심은 후 마을에는 웃음과 활력이 넘쳤으며 마을 사람들은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
- 8 **서술형** ‘페이 잇 포워드 프로젝트’는 한 명이 시작한 도움의 손길이 단계를 거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세상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혼자서 나무를 심는 일을 시작하였지만, 그 작은 실천이 주위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선택 학습

082~085쪽

선택 01 1 ④ 2 ② 3 ⑤ 4 ② 5 ‘옥림이’는 ‘엄마’가 자신의 침대가 아닌 ‘언니’의 침대를 사 주는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다. 6 ③ 7 ②, ⑤ 8 ③

선택 02 1 ④ 2 ① 3 ②

선택 01

- 1 이 글의 갈래는 드라마 대본이다. 드라마 대본에서는 대사와 행동으로 인물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⑤는 희곡, ③은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 2 ‘옥림이’는 자신의 침대가 아니라 ‘언니’의 침대를 사 주는 ‘엄마’에게 화가 난 상황이다. 즉, ‘옥림이’와 ‘엄마’의 갈등 상황이 나타난다.
- 3 ‘옥림이’는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을 보고 ‘엄마’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풀리고 ‘엄마’를 믿기로 결심하게 된다.

- 4 ‘아빠’는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택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기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5 **서술형** 자신의 침대가 아닌 ‘언니’의 침대를 사는 것임을 알고 ‘옥림이’가 ‘엄마’와 ‘예림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다.
- 6 이 글에서 내레이션은 ‘옥림이’의 입장에서 ‘옥림이’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7 ‘엄마’는 ‘옥림이’가 빈혈로 입원하자 ‘옥림이’를 걱정하는 마음에 눈물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눈물에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다.
- 8 이 글에는 ‘옥림이’와 ‘옥림이’의 부모님, 즉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선택 02

- 1 문학은 직접적으로 생계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가)의 “이것이 문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옷이며 밥이다.”에서 ‘옷’과 ‘밥’은 ‘역사’와 ‘철학’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 2 문학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문학의 가치는 삶의 의미를 풍요롭게 해 준다.
- 3 이 글은 글쓴이가 사춘기 시절에 읽었던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예로 들어 문학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②이다.

| 오답 풀이 | ① 분류, ③ 정의, ④ 대조, ⑤ 비교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대단원 평가

086~089쪽

1 ② 2 ⑤ 3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4 ⑤ 5 ③ 6 ② 7 ⑤ 8 ③ 9 ③ 10 ‘나’는 ‘교생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다시 노깅에 들어가 공포에 직접 맞섬으로써 노깅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다. 11 ⑤ 12 ② 13 ⑤ 14 ④ 15 ② 16 위대한 혼과 고결한 인격을 지닌 엘제아르 부피에에게 큰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 1 (가)~(다)의 시적 화자는 공통적으로 곁에 없는 대상을 기다리며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 2 (가)는 추상적인 대상인 ‘시간’을 잘라 내고 보관할 수 있는 사물처럼 표현하고 있다(a). (다)는 비슷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만남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c). 또한 (가)와 (다)는 ‘서리서리, 굵이굵이’, ‘쿵쿵’ 등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 3 **서술형**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너’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 4 ㉔은 '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너'와 만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 5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이'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이'가 시적 화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6 '영래 패거리'의 폭압을 방관만 하던 '나'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여럿이 고쳐 주어야 한다는 '교생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 '영래 패거리'의 횡포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저항하게 된다.
- 7 '나'는 처음에는 '영래 패거리'의 횡포에 대하여 방관하였으나, '교생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게 된다.
- 8 '종잇조각'에는 '교생 선생님'을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교생 선생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
- 9 '장판석'은 '나'의 저항에 동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학급의 권력을 다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종하'는 저항하는 '나'의 먹살을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리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② '영래'는 '나'와 '반 아이들'의 저항에 당황하면서 의외로 나약하게 굴복한다. ④ (가)와 (나)에서 '반 아이들'은 '영래 패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영래'의 반장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에게 동조해 '영래 패거리'를 비난하고 있다. ⑤ (나)에서 '종하'는 '나'에게 사과한다.
- 10 **서술형** '나'는 '교생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노깥에 다시 들어가 봄으로써 노깥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다.
- 11 이 글의 작가는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는 태도를 강조하면서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한 더불어 사는 삶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영래'로 상징되는 힘의 논리에 굴종하지 말아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
- 12 이 글의 '나'는 현실의 불의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여 승리를 거두고 있고, <보기>의 '나'는 불의에 순응하고 있다. 따라서 ②와 같은 내용의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 13 마을 사람들은 '엘제아르 부피에' 덕분에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서로 힘을 합쳐 집을 짓고 채소와 꽃들을 심었다. 마을 사람들이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황무지에 나무를 심지는 않았다.
- 14 ㉔은 '엘제아르 부피에'가 나무를 심은 후 마을의 모습이 변했다는 의미이지,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 15 마을 사람들과 '엘제아르 부피에'는 모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마을 사람들은 희망 없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반면, '엘제아르 부피에'는 신념을 가지고 죽어 가는 땅을 살리고자 나무를 심으며 살아가고 있다.
- 16 **서술형** '나'는 '엘제아르 부피에'의 노력으로 황무지가 풍요로운 땅으로 바뀐 것을 보고 '엘제아르 부피에'에게 큰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3 그때그때 달라요

01.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1 **높임 표현 1**

095쪽

1 ④ 2 주제, 깨서 3 ① 4 ②

- 1 '수지'의 말에서 서술어 '갔어'의 주체는 높임의 대상인 '엄마'이다. '수지'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화자이다.
- 2 **서술형** 주제 높임법은 조사 '이/가' 대신에 '께서'를, 서술어에 '-(으)시-'를 붙여 표현함으로써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또한 '계시다', '잡수시다' 등 일부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 3 <보기>의 '수지'의 말에서 높임의 대상인 '엄마'는 '데리고'의 대상, 즉 문장의 객체이므로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 높임 표현을 실현해야 한다.
- 4 <보기 1>은 객체 높임법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 2>에서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한 문장을 찾아야 한다. ㄱ은 조사 '께'와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ㄴ은 조사 '께'와 '여쭙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 ㄴ. 주제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와 '-(으)시-'를 붙인 '다니다'를 사용하여 주제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ㄷ. 주제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와 '-(으)시-'를 붙인 '오셨다'를 사용하여 주제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2 **높임 표현 1**

097쪽

1 ⑤ 2 ⑤ 3 ④ 4 ① 5 ⑤ 6 ③ 7 어머니, 할머니
께서 눈이 침침하시대요.

- 1 ⑤는 '데리고'의 대상, 즉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여야 하는 문장이다.
- 2 <보기>의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선생님'이므로 주제 높임법을 사용하여 '선생님' 뒤에 조사 '이' 대신에 '께서'를, 서술어 '하다'에 '-(으)시-'를 붙여 표현해야 한다. '오다'의 주체는 '승우'이므로 '오시래'는 적절하지 않다.
- 3 ④는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활용하여 서술의 객체(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 4 ①에서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이다. 따라서 '할머니' 뒤에 조사 '께서'를 붙이고, '밥'의 높임말인 '진지', '먹다'의 높임말인 '들다'를 사용하여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②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자다'의 높임말 '주무시다'를 사용하였다. ③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였다. ④ 객체인 '엄마'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였다. ⑤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편찮으시다', '갔다'에 '-사-'를 붙인 '가셨다'를 사용하였다.

5 '교장 선생님'을 직접 높이는 경우에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해야 하지만, 제시된 담화 상황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교장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이므로, '있다'에 '-(으)시-'를 붙여 표현해야 한다.

6 ③은 '있다'의 주체인 '선생님'을 직접 높이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돈'은 높임의 대상인 '삼촌'의 소유물이므로 '많다'에 '-으사-'를 붙여 '삼촌'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② '키'는 높임의 대상인 '이모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크다'에 '-사-'를 붙여 '이모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④ '시계'는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의 소유물이므로 '있다'에 '-으사-'를 붙여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⑤ '머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세다'에 '-사-'를 붙여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7 **서술형** 제시된 그림에서 남학생의 말은 '할머니의 눈'을 통해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여야 하므로 '침침하다'에 '-(으)시-'를 붙여 표현해야 한다.

3
높임 표현 2

099쪽

1 ④ 2 ⑤ 3 ⑤ 4 ③ 5 ① 6 ② 7 ⑤

1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 즉 상대에 대해 말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를, 객체 높임법은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2 상대 높임법의 체계는 종결 어미의 형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⑤는 비격식체의 높임 표현인 '해요체'를 사용한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①은 격식체의 낮춤 표현인 '하계체', ②는 비격식체의 낮춤 표현인 '해체', ③은 격식체의 아주 높임 표현인 '하십시오체', ④는 격식체의 아주 낮춤 표현인 '해라체'이다.

3 ㄱ~ㄴ은 모두 공식적인 상황이므로 격식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상 또한 다양하므로 낮춤 표현보다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해요체'는 비격식체로, 비격식체는 주로 비공식적인 상황에 사용된다.

5 동생은 자신보다 손아랫사람이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비공식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므로, 비격식체의 낮춤 표현인 '해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6 초대장을 받을 상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진다. 친구에게는 낮춤 표현인 해라체와 해체를, 졸업한 선배에게는 높임 표현인 하십시오체나 해요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7 방송국 뉴스의 인터뷰는 공식적인 상황이므로 비격식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4
높임 표현 2

101쪽

1 ③ 2 ⑤ 3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4 ④

1 (가)에서 '승우'는 '지훈이'에게 '반갑습니다', '합니다', '거예요', '봐요' 등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 (가)에서 '지훈이'와 '승우'는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나)에서는 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사이가 처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격식체에서 비격식체로 높임 표현이 달라진 것이다.

3 **서술형** '선준'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윤희'를 높이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임금이 직접 참관하는 과거 시험에 대리 시험을 치르는 행위에 대해 비꼴으로써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4 ④를 제외한 다른 표현들은 표면적으로는 상대를 높이고 있으나 실은 상대의 행위에 대해 비꼴으로써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는 비꼴의 의도 없이 상대를 높여 표현하고 있다.

5
시간 표현

103쪽

1 ⑤ 2 ② 3 ⑤ 4 ① 5 ③ 6 ② 7 내년에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들을 것입니다).

1 미래 시제는 '-겠-'이나 '내일', '모레' 등의 부사어 또는 '-(으)ㄹ'과 '것'이 결합된 '-(으)ㄹ 것'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2 ②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 일치하는 현재 시제로, '말하는 바로 이때에'를 의미하는 부사어 '지금'과 '-ㄴ-'이 사용된 '도착한다'를 통해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뒤선 미래 시제이다.

3 <보기>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선 과거 시제로, '어제'와 '-았-'이 사용된 '갔다'를 통해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⑤ 역시 과거 시제로, '조금 전에'를 의미하는 부사어 '아까'와 '-더-'가 사용된 '하더라'를 통해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과 ④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과 일치하는 현재 시제이다. ①은 '현재'와 '학생이다'를 통해, ④는 '지금'과 'ㄴ-ㄴ'이 사용된 '부르신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와 ③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뒤선 미래 시제이다. ②는 '내일'과 'ㄴ-ㄴ'이 사용된 '배울 거야'를 통해, ③은 '잠시 후'와 'ㄴ-ㄴ'이 사용된 '시작되겠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4 ①은 오늘의 바로 하루 전을 의미하는 부사어 '어제'와 'ㄴ-ㄴ'이 쓰인 '보았다'를 통해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과거 시제로 '그해'와 '포근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미래 시제로 '다음 주'와 '갈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미래 시제로 '훗날'과 '되겠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현재 시제로 '지금'과 '있어요'를 통해 알 수 있다.

- 5 <보기>의 문장은 부사어 '어제'와 '공부하더라'의 'ㄴ-ㄴ'을 통해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 6 '지훈이'가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한 사건과 '승우'가 뿌듯해한 사건은 모두 '승우'가 일기를 쓰는 시점보다 앞서 일어난 것이므로, ④와 ⑥ 모두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한다.
- 7 **서술형** '내년에는'은 미래를 나타내므로 <보기>의 문장을 미래 시제로 바꿔 쓰는 것이 알맞다. 미래를 나타내는 'ㄴ-ㄴ' 또는 'ㄴ-ㄴ'을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즉집게 예상

104~105쪽

1 ③ 2 ③ 3 높임의 대상: 선생님 / 고쳐 쓴 문장: 나는 선생님께 그 편지를 갖다 드렸다. 4 ③ 5 ⑤ 6 ① 7 ③ 8 ① 9 ② 10 ⑤ 11 ② 12 생각했다 → 생각한다, 말한다 → 말했다

- 1 "엄마가 구청에 갔어."는 서술어 '갔어'의 주체인 '엄마'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주체 높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 '께서'와 'ㄴ-ㄴ'을 붙여 '엄마께서 구청에 가셨어.'로 고쳐야 한다.

- 2 ③에서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주체인 '할아버지'이므로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가'를 '께서', '밥'을 '진지'로, '먹는다'는 '잡수신다' 혹은 '드신다'로 고쳐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② '어머니께서 잠을 주무신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④ '교장 선생님께서 교실에 오셨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⑤ '승우야, 너 선생님께서 지금 오라고 하셔(오라세).'로 고쳐 써야 한다.

- 3 **서술형** <보기>의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이다. 서술의 객체가 부사어이므로 조사 '에게'를 '께'로 바꾸고, '주다'를 높임말인 '드리다'로 고쳐 써야 한다.

- 4 간접 높임법은 서술어에 'ㄴ-ㄴ'을 붙여 표현하며, 조사 '께서'는 주체를 직접 높일 때 사용한다.

- 5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를,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비격식체인 '해요체, 해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6 ①은 '해라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낮추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청자보다 어릴 때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③은 '해요체'를, ④, ⑤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여 표현하고 있다.

- 7 (가)에서는 '지훈이'와 '승우'가 처음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주로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만난 지 1개월이 지나 둘의 관계가 처음보다 가까워져 주로 비격식체를 사용하고 있다.

- 8 ㉠은 격식체인 '하십시오체'가 사용되었다. ㉡, ㉢, ㉣은 비격식체인 '해요체'가, ㉤ 역시 비격식체인 '해체'가 사용되었다.

- 9 밑줄 친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여 상대를 높이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임금이 참관하는 과거 시험에서 대리 시험을 치르는 상대방의 행위를 비꼬고 있다.

- 10 ㄱ~ㄴ은 모두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뒤선 미래 시제로, 이는 'ㄴ-ㄴ'이나 '내일', '모레' 등의 부사어 또는 'ㄴ-ㄴ'과 '것'이 결합된 'ㄴ-ㄴ'을 사용하여 실현된다.

- 11 현재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 일치하는 시제로, 'ㄴ-ㄴ' / 'ㄴ-ㄴ'이나 '지금', '현재' 등의 부사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a는 '지금'과 '도착한다', d는 '부르신다'를 통해 현재 시제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b. '내일'과 '얘기하겠어'를 통해 미래 시제임을 알 수 있다. c. '잠시 후'와 '올 것이다'를 통해 미래 시제임을 알 수 있다. e. '어제'와 '공부하더라'를 통해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 12 **서술형** '생각했다'는 문장 앞부분에 '지금'이라는 부사어가 있으므로 현재 시제 형태로, '말한다'는 '지훈이'가 말한 시점이 글쓴이가 글을 쓰는 시점보다 앞선 시제이므로 과거 시제 형태로 고쳐 써야 한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06~107쪽

1 ⑤ 2 ⑤ 3 ② 4 ③ 5 ④ 6 ⑤ 7 ③ 8 ① 9 표면적으로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이고 있으나 상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비꼴으로써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10 과거: 나는 이 책을 읽었다. / 현재: 나는 이 책을 읽는다. / 미래: 나는 이 책을 읽겠다. 11 • 높임 표현의 종류: 객체 높임법 •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 께, 여쭙(여쭙다) / • 문장의 시제: 미래 시제 • 시제를 알 수 있는 표현: 내일, 여쭙 것이다



- 1 ⑤는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계시'와 '-(으)시-'를 붙인 '오셨다'를,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뵤다'를 사용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만 사용되었다. ②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만 사용되었다. ③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만 사용되었다. ④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과 청자인 '엄마'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 2 ㉞에서 높여야 할 대상인 '아버지'는 청자가 아니라 '문다'의 객체이다.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 어휘 '여쭙다'를 활용해야 한다.

- 3 '계시다'라는 특수 어휘는 주체를 직접 높일 때만 사용한다. ②에서는 '걱정거리'를 통해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여야 하므로 '있다'에 '-(으)시-'를 붙여 '있으시다'로 고쳐 써야 한다.

- 4 (나)에서 '지훈이'가 '해요체'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해요체'는 비격식체의 높임 표현이므로 '승우'를 낮춰 표현한 것이 아니라 높여 표현한 것이다.

- 5 ㄷ, ㅂ을 통해 시제는 부사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서술어에 시제를 나타내는 '-았-', '-ㄴ-/-는-', '-겠-' 등만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6 '-겠-'은 미래 시제뿐만 아니라 추측이나 의지와 같은 다양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⑤의 '-겠-'은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가 아니라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들어가도 좋겠습니까?"와 같은 문장이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 7 '오다'의 주체는 '저(수지)'이므로 서술어에 '-(으)시-'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8 '수지(지)'가 적용한 것은 글쓴이(수지)가 편지를 쓰는 시점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 시제에 해당한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시간상의 어떤 점을 나타내는 '그때'와 '-었-'이 쓰인 '있었어요'를 통해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 9 **서술형** 밑줄 친 표현에서 화자인 '선준'은 표면적으로는 격식을 차려 상대를 높여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의도는 임금이 직접 참관하는 과거 시험에 대리 시험을 치르려는 '윤희'의 행동을 비꼬므로써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 10 **서술형** 과거 시제는 '-았-/-었-'이나 '-더-' 등에 의해, 현재 시제는 '-ㄴ-/-는-'에 의해, 미래 시제는 '-겠-'이나 '-(으)ㄹ 것'에 의해 실현된다.

- 11 **서술형** <보기>의 문장은 서술의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여쭙다)'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이유를 여쭙는 일은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뒤서므로 미래 시제에 해당하며, 부사어 '내일'과 '-(으)ㄹ 것'이 쓰인 '여쭙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2. 사동·피동 표현과 부정 표현



1 사동 표현

111~112쪽

- 1 ④ 2 ④ 3 형이 세호를 의자에 앉힌다. / 형이 세호를 의자에 앉게 한다. 4 ⑤ 5 ④ 6 내가 이 친구를 소개해 줄게. 7 ⑤ 8 ③

- 1 ㉠과 ㉡ 모두 '밥을 먹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상미'이다. 다만 ㉡은 주어인 '엄마'가 '상미'에게 밥을 먹게 하고 있는 것이다.

- 2 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또는 '-게 하다'를 붙이거나 일부 명사 뒤에 '-시키다'를 붙여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입게 한다).' ② '어머니가 누나에게 책을 읽힌다(읽게 한다).' ③ '소년이 사람들을 속였다(속게 했다).' ⑤ '봄기운이 나무들의 새잎을 돋운다(돋게 한다).'와 같이 바꿀 수 있다.

- 3 **서술형** <보기>의 문장은 주동을 나타내는 동사인 '앉는다'에 접미사 '-히-'나 '-게 하다'를 붙여 사동 표현으로 만들 수 있다.

- 4 ㉡은 주어인 '누나'가 '동생'에게 직접 가방을 들리는 직접 사동의 의미와 '동생' 스스로 가방을 들게 하는 간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지닌 반면, ㉠은 간접 사동의 의미만을 지닌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④ ㉠과 ㉡은 모두 사동 표현이다. ③ ㉡은 접미사인 '-리-'가 사용되었지만, ㉡은 '-게 하다'가 사용되었다.

- 5 <보기>의 문장은 주어가 주체적으로 '소'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문장에서 목적어는 '소를'로 생략되지 않았다. ② 종의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이고 있다. ⑤ <보기>의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는 '저'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 6 **서술형** 주어가 주체적으로(직접) 친구를 소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키다'를 삭제하여 주동 표현으로 고쳐 써야 한다.

- 7 (가)의 표제는 '-게 하다'를 사용한 사동 표현이며, (나)의 표제는 주동 표현이다. (가)에서는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인 '황사'를 강조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농민들이 힘든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④ (가)에는 사동 표현이, (나)에는 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 (가)의 주체는 '황사', (나)의 주체는 '농민들'로 (가)와 (나) 모두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③ (나)는 주동 표현으로 접미사 '-아-'가 사용되지 않았다.

- 8 사동 표현인 (가)의 표제와 주동 표현인 (나)의 표제는 강조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사동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② 피동 표현

114~115쪽

1 ㉠ 2 ㉡ 3 ㉢ 4 ㉣ 5 쓰여진 → 쓰인 6 ㉤ 7 ㉥
8 ㉦

- ㉠도 ㉦과 마찬가지로 잡는 행동을 하는 존재는 '포수', 잡는 행동을 당하는 존재는 '호랑이'이다.
- ㉡를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행동을 당하는 피동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어를 '아이'로 바꾸고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업는다'에 접미사 '-히-'를 붙여 '아이가 엄마에게 업힌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은 ㉠과 같이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접미사를 붙이는 방법과, ㉢과 같이 '-어지다'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일부 명사 뒤에 '-되다'를 붙여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으나 ㉤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의 주어인 '진호'는 제힘으로 수지를 보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문장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수지가 (진호에게) 보았다.'가 된다.
- 서술형** '쓰여진'은 '쓰-+-이-+-어지-+-ㄴ'의 형태로, 이 중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먹혀집니다'는 '먹-+-히-+-어지-+-ㅂ니다'가 결합한 형태로 피동 접미사 '-히-'와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하여 이중으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힘이 약한 동물은 힘이 강한 동물에게 먹힙니다.'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 ㉠의 '보입니다'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인 '보다'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인 피동 표현이므로, 능동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접미사를 빼면 된다.
- 신문이나 방송에서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민감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부정 표현

117쪽

1 ㉠ 2 ㉡ 3 ㉢ 4 ㉣ 5 ㉤ 6 이번 여름 방학 때는 가족 여행을 가지 못했다.

- '승우'가 아파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은 외적인 원인에 의해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못' 부정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은 '-지 아니하다'가 사용된 긴 부정 표현이고, ㉢은 '-지 못하다'가 사용된 긴 부정 표현이다.

3 ㉣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늦잠을 자는 외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지, 주어의 의지에 의한 상황이 아니므로 '못' 부정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4 <보기>는 청유문으로 청유문의 부정 표현에는 '안'과 '못'이 아닌 '-지 말자'가 사용된다.

5 ㉤은 '안' 부정 표현으로, 주어인 '나'의 주체적인 의지로 일찍 오지 않았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 주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표현할 때 쓰이는 '안' 부정 표현으로 주어인 '나'의 의지로 연락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주어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적인 원인에 의한 부정을 표현할 때 쓰이는 '못' 부정 표현으로 주어인 '나'가 외적인 원인에 의해 연락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지 마라'를 통해서 명령문의 부정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 '-지 말자'를 통해서 청유문의 부정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6 **서술형** 긴 부정 표현은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를 사용하며, 외적인 원인에 의한 부정 표현을 나타낼 때는 '못' 부정 표현을 사용한다.

즉집게 예상

118~119쪽

1 ㉠ 2 ㉡ 3 ㉢ 4 심한 황사가 농민들을 힘들게 하다(힘들게 한다)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의 주동 표현을 (나)의 상황에 맞는 사동 표현으로 바꾸면 '엄마가 상미에게 밥을 먹인다.'이다.

2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은 주어인 '아이'가 '오빠'에 의해 동작을 당하고 있으므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3 ㉠은 주어가 직접 소설을 완성하였는데,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주어인 '엄마'가 대상인 '저'에게 심부름을 하게 하고 있으므로, 사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주어인 '아버지'가 대상인 '동생'에게 입원을 하게 하고 있으므로, 사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주어인 '부모님'이 대상인 '자녀'에게 공부를 하게 하려 하므로 사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주어인 '할머니'가 대상인 '버스'를 정지하게 하고 있으므로, 사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서술형**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은 '심한 황사'이므로 이를 주어로 하고 '-게 하다'를 사용하여 사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5 '-게 하다'는 주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붙여 사동 표현으로 바꿀 때 활용한다.

6 '호랑이가 포수에게 잡혀지다.'는 '잡-+-히-+-어지-+-다'와 같이 이중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한 문장으로 적절한 피동 표현이 아니다.



- 7 ㉓은 주어(은영이)가 동작(쓴다)을 제함으로 하는 능동 표현이다.
- 8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동의 직접적인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 9 ㉔은 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쓰-+-이-+-어지-+-ㄴ’과 같이 불필요하게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 10 ㉕은 ‘안+동사’의 형태로 ‘안’ 부정 표현의 짧은 부정 표현이며, ㉖은 ‘못+동사’의 형태로 ‘못’ 부정 표현의 짧은 부정 표현이다.
- 11 차가 막힌 것은 주어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외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안’ 부정 표현이 아닌 ‘못’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차가 많이 막혀서 제시간에 오지 못했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 12 목줄을 채우지 않은 애완견이 제함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 의해 출입을 제한당하는 것이므로 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20~121쪽


1 ㉒ 2 ㉔ 3 ㉒ 4 ㉕ 5 ㉑ 6 ㉒ 7 ㉔ 8 ㉒

9 사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황사)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10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보입니다’와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11 반성문을 못 쓴 것은 제가 반성문을 쓸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적인 이유에 의한 것을 의미하고, 반성문을 안 쓴 것은 제 의지에 의한 것을 의미해요.

- 1 ‘아이가 엄마에게 업힌다.’는 피동 표현이다. ‘엄마가 아이를 업는다.’를 ‘-히-’를 활용하여 사동 표현으로 바꾸려면 ‘엄마가 언니에게 아이를 업힌다.’로 고쳐야 한다.
- 2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고,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행동을 당하는 것을 나타낸다. ㉔은 주어인 ‘나’가 다른 대상인 ‘부모님’에게 상장을 보는 행동을 하게 했음을 나타내므로 사동 표현이다. 나머지는 모두 피동 표현이다.
- 3 ㉕은 ‘삼촌’이 ‘형’에게 스스로 짐을 들도록 하는 간접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와 같은 간접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㉔, ㉖이다.
- 4 ㉔의 ‘먹혀지네’는 ‘먹히다’라는 피동 표현에 ‘-어지다’를 결합하여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
- | 오답 풀이 |** ① ㉑의 ‘들렸다’에 ‘-어지다’를 붙이면 ‘새소리가 나에게 들어지다.’로 어색한 표현이 된다. ② ㉑은 피동 표현으로, 이를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새소리를 들었다.’가 된다. ③, ④ ㉕은 능동 표현으로 ‘-기-’를 붙여 ‘자물쇠가 누군가에게 뜯겼다.’와 ‘-어지다’를 붙여 ‘자물쇠가 누군가에게 뜯어졌다.’와 같은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 5 ㉑은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열다’에 피동을 나타내는 ‘-리-’와 ‘-어지다’가 모두 결합된 형태로, 이중으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열립니다’로 고쳐야 한다.
- 6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동을 당하는 것이다. 사동과 피동의 의미를 고려할 때, ㉑, ㉔, ㉖이 사동 표현에 해당하고 ㉒, ㉓, ㉕이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 7 ㉕을 짧은 부정 표현으로 바꾼 문장은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못 대한다.’로,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8 ㉒는 청유문이므로 ‘-지 마자’가 아닌 ‘-지 말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 마라’는 명령문에서 사용하는 부정 표현이다.
- | 오답 풀이 |** ① ‘못’ 부정 표현의 짧은 부정은 형용사 앞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명령문이므로 ‘-마/마라’를 사용해야 한다. ④ 주체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정 표현이므로 ‘안’ 부정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⑤ 평서문이므로 상황에 따라 ‘안’이나 ‘못’을 사용해야 한다.
- 9 **서술형** 제시된 신문 기사와 표제는 주어인 ‘심한 황사’가 대상인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동 표현이다. 제시된 신문 기사와 표제는 이러한 사동 표현을 통해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을 강조하고 있다.
- 10 **서술형** ‘보입니다’는 ‘보- + -이- + -ㅂ니다’와 같이 피동 접미사 ‘-이-’가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빼면 능동 표현이 된다. <보기>의 글과 같이 각종 매체에서 피동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 11 **서술형** ‘못’ 부정 표현은 주어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적인 원인에 의한 부정을 표현할 때 쓰이며, ‘안’ 부정 표현은 주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표현할 때 쓰인다.

 **선택 학습** 122~123쪽

선택 01 1 ㉔ 2 ㉔ 3 ㉓ 4 안 그럴까 봐 두렵소. 5 ㉒

선택 02 1 ㉒ 2 ㉑ 3 내면(나게 하면)

- 선택 01**
- 1 ㉑은 높임의 대상이 서술의 주체인 ‘시장님’이므로, ‘시장님’ 뒤의 조사 ‘이’를 ‘께서’로 바꾸고 ‘시장님’에 호응하는 서술어 ‘있느’를 특수 어휘 ‘계신’으로 바꾸어야 한다.
- 2 ㉕에서 높임의 대상인 ‘시장님’은 이 문장에서 서술의 객체이므로 객체 높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3 ㉔은 ‘-었-’이 쓰였으므로 과거 시제에 해당한다. ㉔의 ‘-는지’는 시제가 아니라 막연한 의문을 나타낸다.

4 **서술형** ㉔를 짧은 부정문으로 바꾸려면 부사 ‘안’을 사용해야 한다.

5 ㉔는 주어(가을)가 다른 대상(내 시간)에게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채우고’와 같은 사동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선택 02

1 <보기>는 사동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이-’를 붙여 만든 ㉔의 ‘죽인다’와 ‘-기-’를 붙여 만든 ㉔의 ‘말기다’가 이에 해당한다.

2 ㉔은 문맥상 주어진 입이 다른 대상인 금을 녹게 하는 것이므로, ‘녹인다’는 ‘녹는다’에 ‘-이-’를 붙여 만든 사동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3 **서술형** 생략된 주어가 다른 대상(남의 눈)에 행동이나 동작((눈물) 나다)을 하게 하는 의미이므로, ‘나다’를 사동 표현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대단원 평가

124~127쪽

1 ③ 2 ② 3 높임의 대상은 ‘엄마’로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어 야 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모시고 갈게.’가 바른 표현이다. 4 ⑤ 5 ⑤ 6 ② 7 ② 8 얘기하겠다(얘기할 것이다) 9 ④ 10 ② 11 ③ 12 ⑤ 13 ⑤ 14 ③ 15 ④ 16 ① 17 ③ 18 ④ 19 ㉔: 은아는 책을 읽지 않았다. / ㉔: 은아는 책을 읽지 못했다. 20 ⑤ 21 저희는 시장님께 자연은 인간의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 ⑤

1 (나)에서 ‘승우’는 ‘지훈이’의 선배이기는 하지만, 처음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3학년 이승우라고 합니다.”와 같이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승우’는 “어머니 집에 계시니?”, “엄마께서 아주머니와 함께 오라고 하셨는데.”와 같이 서술의 주체인 ‘어머니’와 ‘엄마’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② (가)의 ‘수지’는 “엄마가 구청에 갔어.”라는 문장을 ‘께서’와 ‘-(으)시-’를 사용하여 ‘엄마께서 구청에 가셨어.’라고 바르게 고치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지훈이’는 주로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다)의 ‘선준’은 주로 격식체의 높임 표현인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2 둘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졌으므로 ‘지훈이’와 ‘승우’ 모두, 주로 사적인 자리나 친한 사이에 사용하는 비격식체를 사용하게 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지훈이’가 후배이므로 비격식체 중에서도 높임 표현인 ‘해오체’를, ‘승우’는 선배이므로 낮춤 표현인 ‘해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3 **서술형** ㉔에서 높임의 대상은 ‘엄마’이며, ‘엄마’는 서술의 객체이므로 객체 높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객체 높임법은 주로 ‘드리다’, ‘모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실현한다.

4 ‘선준’은 임금이 직접 참관하는 과거 시험에 대리 시험을 치르는 ‘윤희’의 행위에 대해 비꼬려는 의도로 격식체의 아주 높임 표현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5 간접 높임법은 높여야 할 대상과 관련된 것을 통해 높임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㉔는 높여야 할 대상인 ‘교장 선생님’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직접 높이는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였다. ②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였다. ③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편찮다’를 사용하고, 서술어 ‘가다’에 ‘-(으)시-’를 붙여 서술의 주체인 ‘어머니’를 직접 높이는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였다. ④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였다.

6 현재 시제는 ‘-ㄴ-/-는-’이나 ‘지금’, ‘현재’ 등의 부사어를 사용한다.

7 현재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 일치하는 시제로, ‘-ㄴ-/-는-’이나 ‘지금’, ‘현재’ 등의 부사어를 사용한다.

| 오답 풀이 | ㉔ ‘어제’와 ‘보았다’를 통해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㉔ ‘잠시 후’와 ‘올 것이다’를 통해 미래 시제임을 알 수 있다. ㉔ ‘어제’와 ‘공부하더라’를 통해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8 **서술형** ㉔에서 그에게 얘기한 것은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므로 ㉔은 과거 시제에 해당한다. ㉔은 ‘내일’로 보아 미래 시제를 나타내려 한 것이므로 서술어에 ‘-겠-’이나 ‘-(으)ㄹ 것’을 사용해야 한다.

9 ㉔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한 것은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므로 ㉔는 과거 시제이며, 나머지는 모두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뒤선 미래 시제이다.

10 ‘뵈다’는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특수 어휘이다. ‘선생님을 처음 뵈 지도’에서도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뵈다’를 사용하였다.

11 ㉔은 ‘수지’가 힘들었던 ‘그때’의 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㉔은 미래 시제가 아닌 과거 시제, 즉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12 (나)의 ㉔은 형이 동생에게 스스로 그네를 타게 하는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만, ‘형이 동생에게 그네를 태운다.’는 형이 직접 동생에게 그네를 태우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다.



13 ①~④의 ㉠은 주동 표현이고 ㉡은 사동 표현이다. 그러나 ⑤의 ㉠과 ㉡은 모두 사동 표현이다.

14 사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이나 행동을 시키는 주체, 즉 행동의 원인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황사'를 주어로 하고, 사동 표현을 활용한 문장을 찾으면 된다.

15 ④는 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사슴이 풀을 먹는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풀이 사슴에게 먹힌다."이다.

16 ㉠의 '쓰여진'은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 ㉡의 '먹혀집니다'는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②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③ ㉠은 '-히-'와 '-어지다'가 ㉡은 '-아-'와 '-어지다'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피동 표현을 만드는 문법 요소이다. ④ 사동 표현이 아닌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⑤ 피동 표현을 만들기 위해 '-되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일부 명사에 한정된다.

17 ㉠의 '죽인다', ㉡의 '말기다', ㉢의 '죽인다'는 주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사동 접미사 '-이-'와 '-기-'를 붙여 만든 사동 표현이고, ㉣의 '찍힌다', ㉤의 '보인다'는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히-', '-이-'를, ㉥의 '굳어진다'는 '-어지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18 ㉠은 '안' 부정 표현으로 '승우는 밥을 먹지 않는다.'와 같이 긴 부정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9 **서술형** ㉠에는 주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인 '안' 부정 표현이 들어가야 하며, ㉡에는 주어의 능력에 의한 부정인 '못' 부정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20 (가)에서는 '학생들입니다', '주셨으면 합니다' 등과 같이 '하십시오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나)에서는 '있소', '되오' 등과 같이 '하오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21 **서술형** 객체 높임법은 서술의 객체인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로 '여쭙다', '드리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실현한다. (가)의 세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이 객체 높임법에 어긋나며, 이는 '저희는 시장님께 자연은 인간의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22 ㉠에는 '안' 부정 표현 중 긴 부정 표현이 사용되었다. '안' 부정 표현의 짧은 부정 표현은 '안+형용사/동사'로 실현되고, 긴 부정 표현은 '어간+-지 아니하다'로 실현된다.

| 오답 풀이 | ① '-(으)시-'를 사용하여 생략된 주체인 '시장님'을 높이고 있다. ② '망가뜨리지 않도록'에 '안' 부정 표현의 긴 부정 표현인 '-지 아니하다'의 형태가 나타난다. ③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되다'가 붙은 '보전되기를'이 사용되었다. ④ 주동을 나타내는 동사 '차다'에 접미사 '-이우-'를 붙여 사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4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01. 주장하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의 절차와 방법

132~135쪽

1 ⑤ 2 ⑤ 3 ② 4 ③ 5 ⑤ 6 ① 7 ② 8 ③ 9 ④
10 ① 11 ③ 12 서론 13 ① 14 ② 15 ⑤ 16 ③
17 ② 18 ②

1 (가)의 신문 기사를 보면, 지나친 외모 중시 풍조로 인해 대입이나 취업을 위한 성형이 성행하는 등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다.

2 (나)의 '민지'와 '준수'는 외모 중시 풍조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고 문제 상황을 파악한 뒤 이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글쓰기의 절차에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하는 단계는 '문제 상황 파악 및 주장 정하기'이다.

3 (나)의 '민지'는 능력이나 성품은 뒷전으로 미뤄 두고 외모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민지'는 외면의 아름다움은 순간이며, 외모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민지'의 생각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④ 외모를 가꾸는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준수'의 생각에 부합하는 주장이다. ⑤ '민지'는 대중 매체가 획일화되고 왜곡된 미의 기준을 주입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4 (나)에서 '준수'는 외모도 능력이며, 외모를 가꾸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③은 외모에 대한 동서양의 가치관 차이만 다루고 있어 '준수'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5 '근거 마련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평가하기, ② 문제 상황 파악하기, ③ 개요 작성하기, ④ 주장하는 글쓰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6 자료 조사 방법 중, ①의 현장 탐방이나, 전문가와의 대담,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직접 조사 방법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②와 ⑤는 방송 매체, ③은 통신 매체, ④는 인쇄 매체를 활용한 정보 수집 방법으로, 모두 간접 조사 방법에 해당한다.

7 백과사전에서 찾은 자료에는 외모 지상주의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외모 지상주의의 용어를 정의할 때 활용할 수 있다.

8 [A]는 문장 개요이고, <보기>는 화제 개요이다. 문장 개요는 글의 전개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반면, 화제 개요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④ 개요는 글을 쓰기 전에 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것으로, 개요의 종류가 글의 신뢰성과 독자의 흥미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② [A]와 같은 문장 개요보다는 <보기>와 같은 화제 개요의 형태가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⑤ [A]는 문장 개요로, 대개 내용을 핵심 어구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화제 개요보다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9 ㉠과 ㉡에는 각각 본론의 ‘주장 1’과 ‘주장 2’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에는 외모로 차별받는 구체적인 사례를, ㉡에는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대중 매체와 상업주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는 ‘주장 3’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글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이해를 돕는다.

11 주장하는 글쓰기는 ‘문제 상황 파악 및 주장 정하기 → 근거 마련하기 → 개요 작성하기 → 주장하는 글쓰기 → 평가하고 고쳐쓰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2 **서술형** <보기>의 설명은 주장하는 글의 구성 단계 중 ‘서론’에 대한 설명이다.

13 주장하는 글의 ‘결론’은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므로 글 전체가 완성된 느낌을 주고, 글이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ㄱ, ㄴ과 같은 글쓰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가)~(마)를 주장하는 글의 구성 단계에 따라 나누면, (가)는 서론, (나)~(라)는 본론, (마)는 결론에 해당한다.

15 (마)에서 글쓴이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는 내면의 성숙이기에 외적인 가치만을 좇는 현실을 변화시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외모 지상주의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주범이 대중 매체와 상업주의라는 점을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간디, 스티브 잡스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성품이나 능력 등 내면의 아름다움임을 주장하고 있다.

16 (다)에서는 (가)에서 제기한 문제(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현상)의 원인을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와 상업주의라고 분석하고 있다.

17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며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는 내면의 성숙이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복한 집안 환경이나 타고난 외모로 성공한 사람이 아닌 성품과 능력, 삶에 대한 열정으로 존경받거나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18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전문 용어와 같은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와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즉집계 예상

136~137쪽

1 ⑤ 2 ㄱ-ㄴ-ㄱ-ㄴ-ㄴ-ㄴ 3 ④ 4 ③ 5 ④ 6 ⑤
7 ④ 8 ①

1 주장하는 글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⑤는 주장하는 글쓰기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2 **서술형**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글은 ‘문제 상황 파악 및 주장 정하기 → 근거 마련하기 → 개요 작성하기 → 주장하는 글쓰기 → 평가하고 고쳐쓰기’의 순서에 따라 쓴다.

3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태에 대해 ‘민지’는 외모보다 능력이나 성품과 같은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준수’는 외모도 능력이라고 말하며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도 경쟁력이므로 외모를 관리해야 한다는 강연과 이 자료를 활용하여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사회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하는 것은 ‘민지’의 주장과 엇갈리는 내용이다.

5 이 글은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는 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글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6 (마)는 이 글의 결론 부분으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는 글쓰기 방법이 활용되었으며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청소년들 사이에서 ‘얼짱’을 뽑는 것이 일반화되고, 개학할 외모가 바뀐 청소년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사회 현상을 제시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인사 담당자들이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외모를 고려한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③ 서론에서 제기한 외모 지상주의의 원인을 대중 매체와 상업주의라고 밝히고 있다. ④ 외모가 아닌 훌륭한 성품과 실력으로 성공을 거둔 간디와 스티브 잡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7 ㉢은 (라)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이다. (라)의 중심 문장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다.”라고 할 수 있다.

8 독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글쓴이의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써야 한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38~139쪽

1 ② 2 ③ 3 ① 4 ④ 5 ② 6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세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7 ㉠: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 584명 중 94%가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외모를 고려한다고 한다. / ㉡: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8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 1 근거 마련하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정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2 '아름다움의 추구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주장은 '본론 2'의 하위 항목 내용과 동떨어진다. '본론 2'의 하위 항목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외모 가꾸기의 긍정적 효과' 또는 '행복을 위한 외모를 가꾸기는 일종의 권리'와 같은 내용을 주장으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 좋은 음식 별수 없다"는 겉모양은 좋으면서 그 내용이 별로 좋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글의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속담이다. 따라서 주제와 관련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로 속담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본론 1'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외모는 곧 개인의 경쟁력'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직자 대다수가 외모도 경쟁력이란 말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만으로는 결론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의 발전을 위한 행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3 전문가와의 대답은 직접 조사 방법에 해당하며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대중 매체를 비판하는 내용은 외모 지상주의의 주범으로 대중 매체를 지적한 (다)의 내용과 부합한다. 따라서 ①은 자료 조사 방법과 그 내용 모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② 현장 탐방이 아니라 인쇄 매체를 통한 간접 조사 방법에 해당하며, 자료의 내용도 글쓴이의 주장에 어긋난다. ③ 자료 조사 내용은 적절하나 강연은 직접 조사 방법에 해당한다. ④ 자료 조사 내용은 적절하나 블로그는 인쇄 매체가 아니라 통신 매체에 해당하는 조사 방법이다. ⑤ 자료 조사 방법은 적절하나 자료 조사 내용이 글쓴이의 주장에 어긋난다.
- 4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는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로, 이 속담을 활용하여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주장하는 이 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③ 결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글쓴이의 주장과 부합하는 속담이므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수 없다. ⑤ 자기에게 덕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의문을 제기한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속담이다.

- 5 이 글은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주장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통계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 등의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6 **서술형** <보기>에서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근거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풍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글쓴이는 <보기>를 통해 외모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사회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7 **서술형** 이 글의 구성 단계를 고려할 때, '본론 1'은 (나), '본론 3'은 (라)에 해당한다. 글쓴이는 (나)에서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외모 지상주의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라)에서는 간디, 스티브 잡스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8 **서술형** 이 글은 서론에서 제기한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에 대해 결론 부분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이며, 이제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답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02. 토론하기



토론의 절차와 방법

142~145쪽

1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2 ⑤ 3 ③ 4 ④ 5 1996년 헌법 재판소에서 사형 제도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6 ⑤ 7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8 ② 9 ④ 10 ④ 11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 토론 순서를 제시한다. 12 ⑤ 13 ③ 14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사형 제도를 옹호한다는 것 15 ④ 16 ② 17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감형 없는 종신형, 사면이나 복권 없는 무기 징역으로 대체해야 한다. 18 ① 19 ⑤

- 1 **서술형** (가)에서 사회자가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이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 2 토론의 사회자는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
- 3 (나)에서 찬성 측 1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에서 반대 측 1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찬성 측 ①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①, ②, ⑤를 근거로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반대 측 ①의 입론 내용이다.

5 **서술형** 반대 측 ①은 사형 제도가 헌법 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았고, 사형 제도는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와는 다르며, 흉악범은 그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어 사형 제도의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6 (가)~(나)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해 찬반 양측이 주장을 입론하는 과정이고, (다)는 사회자가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쟁점을 확인시키는 과정이다. (다)에서 사회자의 마지막 말을 고려할 때, (가)~(다)의 다음에 이어질 토론의 절차는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한 반대 측의 반론 및 주장 강화이다.

7 **서술형** (가)에서 찬성 측 ②는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에서 반대 측 ②는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 반대 측 ②는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형 제도가 극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충동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 오답 풀이 | 나. 형벌의 목적이 보복이 아닌 개선과 교정이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형벌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한 것은 찬성 측 ②이다. 다. 찬성 측 ②가 사형 제도를 없앤 후, 살인율이 줄어든 캐나다의 사례를 근거로 활용하였다.

9 고전적 토론에서 양측 토론자가 제시한 논거의 타당성 등을 따져 어느 측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배심원의 역할이다.

10 반대 측 ①은 찬성 측이 주장한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찬성 측 ①은 반대 측이 주장한 사형 제도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판과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문제를 지적하며 자기 측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11 **서술형** (다)에서 사회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반론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토론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12 반대 측 ①은 가해자를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국가에서 보살펴 주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13 (가)에서 반대 측 ①은 찬성 측에서 사형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한 종신형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상대방의 발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 오답 풀이 | ① 반대 측 ①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② 사회자의 특별한 제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반대 측 ①은 발언 순서와 시간 모두 적절하게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반대 측

①은 찬성 측에서 사형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한 종신형과 가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의 인권에 대해 발언하고 있으므로 논제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⑤ 반대 측 ①이 찬성 측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지는 않았다.

14 **서술형** 찬성 측 ①은 형벌을 경제성의 논리로 따져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사형 제도는 오판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15 고전적 토론은 찬반 양측이 각각 두 번의 입론과 반론을 펼치는 데, (가)~(다)는 찬반 양측의 두 번째 반론 및 최종 의견 정리에 해당한다.

16 (가)에서 반대 측 ②는 사형 판결에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찬성 측의 의견에 대해 현재는 오판의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사형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측의 최종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7 **서술형** (나)의 찬성 측 ②의 마지막 발언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의 주장과 대안을 알 수 있다.

18 반대 측 ②는 찬성 측의 발언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하하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19 토론의 논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토론 과정에서 논제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죽집게 예상

146~147 쪽

1 ① 2 ⑤ 3 ㉠: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반대 측 주장 입론.
㉠: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찬성 측 주장 입론 4 ④ 5 ④
6 ③ 7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8 ④

1 토론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사람은 사회자가 아니라 찬반 양측 토론자이다. 토론 준비 과정에서 사회자는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론 논제와 규칙 및 순서 등을 숙지해야 한다.

2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양측이 서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 유형이다.

3 **서술형** 고전적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네 번의 입론과 네 번의 반론을 펼친다. 제시된 토론의 절차에는 입론의 과정만 나타나 있다.



4 (가)~(나)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없다는 찬성 측의 주장과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다)~(라)에서는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찬성 측의 주장과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토론의 주요 쟁점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있는가.'와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5 반대 측에서는 사형 제도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을 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한 근거이다. ⑤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한 근거이다.

6 (나)에서 찬성 측 ①은 형벌의 목적이 반성과 교화이므로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사형 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③은 이러한 찬성 측의 반론 내용과 다르므로, 사회자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반대 측에서 제기한 반론 내용을, ④ 찬성 측에서 제기한 반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사회자의 발언으로 적절하다. ⑤ 다음에 이어질 토론 순서를 제시한 것이므로 사회자의 발언으로 적절하다.

7 **서술형** (다)는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대 측의 반론 및 최종 의견을 정리한 발언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토론의 논제에 대한 반대 측의 최종 의견을 정리하여 말하고 있다.

8 ㉔은 찬성 측에서 자신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형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근거로 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48~149쪽

1 ④ 2 ④ 3 ② 4 ⑤ 5 ③, ④ 6 토론의 논제를 제시한다. / 토론 규칙과 순서를 제시한다. / 토론의 시작을 알린다.

7 ㉔: 캐나다의 경우 사형 제도를 폐지한 후 10여 년 동안 살인율이 59% 정도 줄었다고 함. / ㉕: 사형 제도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음. 8 문제점: 반대 측 ①은 찬성 측의 발언에 대해 “그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발언을 존중하지 않았다. / 올바른 태도: 토론 참가자들은 상대 토론자의 발언을 존중하고 의견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9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사형 제도를 옹호한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1 근거를 마련할 때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유전자 조작이 각종 윤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은 유전자 조작 식품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2 이 답화는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양측이 서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토론이다. 이와 같은 답화 유형이 필요한 상황은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는 ④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므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답화 유형이 필요하다. ③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상황이므로 연설과 같은 답화 유형이 필요하다. ⑤ 의견을 모아 체험 활동 장소를 정해야 하므로 토의와 같은 협력적인 답화 유형이 필요하다.

3 (가)의 사회자의 말을 통해 이 답화가 토론의 대표적인 유형인 고전적 토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에서 사회자가 제시한 것처럼 고전적 토론에는 일정한 규칙과 발언 순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론 참여자는 찬반 양측 토론자 각 2명과 사회자로 구성된다.

| 오답 풀이 | b. 고전적 토론은 배심원들의 표결로 승부를 낸다. c. 토론은 참여자들 간에 상호 작용이 경쟁적이며, 참여자들이 협력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은 토의이다.

4 찬성 측은 반대 측의 주장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오판이나 정치적 악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반대 측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나)에서 찬성 측은 형벌의 목적은 보복이 아닌 반성과 교화에 있다며 사형 제도의 대안으로 종신형을 제시하였다. ③ (나)에서 캐나다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④ (마)에서 오판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형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5 반대 측은 사형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사형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여론 조사 결과나 평등 원칙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가해자의 생명을 비교하는 내용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6 **서술형** (가)에서 사회자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각 발언 시간은 2분이며 입론은 찬성 측부터, 반론은 반대 측부터 한다는 토론 규칙과 순서를 안내하며 본격적인 토론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7 **서술형**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쟁점에 대해 찬성 측은 캐나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반대 측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인 사형 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범죄의 충동을 억제시키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등을 근거로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8 **서술형** (라)에서 반대 측 ㉠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와 같이 상대 토론자의 발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토론 참가자는 상대 토론자의 발언을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에 임해야 한다.

9 **서술형** (마)에서 찬성 측 ㉠은 종신형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형벌을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론하고 있다.

선택 학습

150~151쪽

선택 01 1 ⑤ 2 ① 3 검소한 것을 숭상해야 한다. 4 ①, ⑤
5 ② 6 ③

선택 02 1 ⑤ 2 ③

선택 01

1 이 글의 글쓴이는 사치스러운 풍속을 비판하며 검소한 것을 숭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을 뿐, 자신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걸치레에만 힘쓰는 세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마)와 (아)에서 중국의 경서인 “서경”과 “시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③ (가)에서 사치스러운 풍속이 만연한 세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소한 것을 숭상해야 한다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아)에서 재물 만들기의 어려움과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2 글쓴이는 사치스러운 풍속이 만연하는 세태와 문벌을 숭상하여 부가 세습되고 사치가 더욱 증가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3 **서술형** 글쓴이는 문벌을 숭상하여 부가 세습되고 이로 인해 더욱 사치가 증가하는 세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소한 것을 숭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글쓴이는 ‘검소한 것을 숭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과 검소한 것을 숭상해야 하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5 ②는 글쓴이가 문제 삼고 있는 당대의 조선 현실(문벌이 세습되던 현실)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에 대해 글쓴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①, ③, ④, ⑤는 글쓴이가 문제 삼고 있는 모습으로, 글쓴이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6 글쓴이는 종이를 만드는 것이 무척 고달프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종이를 사용할 때마다 종이를 만드는 어려움을 생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 역시 베를 짜는 일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굵은 갈포든 가는 갈포든 싫음이 없다고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선택 02

1 ‘해승’은 ‘민서’의 주장에 대해 너무 속물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며 의견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승’이 적절하지 못한 태도로 토론에 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행복은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데에서 싹트는 것이라고 정의한 명언이 행복의 조건이 사랑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대단원 평가

152~155쪽

1 ⑤ 2 ③ 3 ㉠: 대중 매체와 상업주의는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주범이다. 4 ④ 5 ④ 6 ② 7 ⑤ 8 ④ 9 ③
10 ⑤ 11 ④ 12 ③ 13 외모는 개인의 경쟁력이다.
14 ② 15 ②

1 이 글은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세태를 비판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장을 통해 외적인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쓴 주장하는 글이다.

2 글쓴이는 서론에 해당하는 (가)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외모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는 사회 현상을 문제 상황으로 파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서술형** 글쓴이는 외모 지상주의의 문제점과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주범을 제시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4 이 글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④와 같은 명언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글쓴이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뒷받침할 때 적절한 자료들이다.

5 <보기>는 주장하는 글의 구성 단계 중, ‘본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의 (가)는 서론, (나)~(라)는 본론, (마)는 결론에 해당한다.

6 (나)에서 인사 담당자의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가)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마)에서 답하고 있으며(㉡), (가)에서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 현상을 지적하고 외모 지상주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주로 결론에서 활용하는 글쓰기 방법으로, 이 글의 결론인 (마)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덧붙이지 않았다. ㉡. (다)에서 외모 지상주의의 원인을 대중 매체와 상업주의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지는 않았다.



- 7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는 것은 사회자가 할 일로, 기록자는 토론 내용을 기록하면서 양측 토론자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 8 (다)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한 반대 측 2의 입론이다. 따라서 (다)의 뒤에 이어진 발언 순서는 반대 측 1의 반론임을 알 수 있다.
- 9 (나)에서 찬성 측 2는 캐나다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에서 반대 측 2는 사형 제도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충동을 억누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나)~(다)에 드러나는 쟁점은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 10 (마)에서 반대 측 2는 사형 제도의 정치적 악용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을 뿐, 종신형과 사형 제도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비교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찬성 측은 (나)에서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고 발언하였다. ② 반대 측은 (다)에서 사형 제도는 극형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범죄를 막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③ (나)에서 찬성 측은 형벌의 목적이 개선과 교정이므로 종신형이 형벌의 목적에 더 적절하다고 발언하였다. ④ 찬성 측은 (바)에서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고 하며,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11 ㉔은 논리적 근거가 있는 반박이 아닌,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표현이다. 이는 상대측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② 사회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첫 번째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각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였다. ③ 캐나다가 사형 제도를 폐지한 후 살인율이 줄었다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 ⑤ (라)에서 사회자가 양측이 마지막 반론과 정리를 할 순서임을 안내한 것으로 보아, (마)와 (바)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마지막 반론 및 최종 의견임을 알 수 있으며, 반대 측 2는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측의 최종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12 (가)와 (나)는 주장하는 글, (다)는 토론, (라)~(마)는 자신의 주장을 드러낸 고전 수필이다. (가)~(마) 모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 위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13 **[서술형]** (가)의 글쓴이는 외모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의 글쓴이는 외모가 개인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하여 외모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14 (다)는 토론 상황의 일부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찬성 측 1의 입론이다. 찬성 측 1은 헌법의 내용을 근거로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15 (라)~(마)의 글쓴이는 길치레에만 힘쓰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사치스러운 풍속을 없애고 검소한 것을 숭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생활 속 읽기

01. 설득의 화법을 읽어라

1

광고의 특징과 설득 전략

160~162쪽

1 ② 2 설득 3 ① 4 라디오 광고 5 ⑤ 6 ① 7 인물
을 전면에 내세운다. 8 ② 9 ③ 10 ⑤ 11 ① 12 허
위 광고 13 ⑤

- 1 (가)에서 광고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 외에도 상품 판매, 기업 홍보, 특정 메시지 전달 및 각인 등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 광고나 상품 광고는 해당 기업에서 만드는 것으로, 광고가 소비자의 생각을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기업 광고에 해당한다. ③ 상품 광고에 해당한다. ④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림.'이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 특정 메시지 등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⑤ 광고는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역할도 한다.
- 2 **[서술형]**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려는 설득임을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광고는 목적에 따라 상품 광고, 기업 광고, 상업 광고, 공익 광고로 나눌 수 있다. 인쇄 광고, 라디오 광고, 인터넷 광고는 사용 매체에 따라 나눈 것이다.
- 4 **[서술형]** (다)에서 라디오 광고는 음성과 음향만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청각에 호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제시된 광고는 전기를 아껴 쓰도록 설득하기 위한 광고로, 정보 전달의 기능보다는 설득의 기능이 더 큰 광고이다.
- |오답 풀이|** ① 제시된 광고는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되는 인쇄 광고이다. ②, ④ 인쇄 광고는 문자 언어와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시각에 호소한다. ③ 제시된 광고는 전기를 아껴 쓰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익 광고에 해당한다.
- 6 (나)에서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은 광고의 목적이거나 사용 매체에 상관없이 모든 광고에 두루 사용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②는 (다), ③은 (라), ④는 (마), ⑤는 (바)를 통해 알 수 있다.
- 7 **[서술형]** 제시된 광고에서는 유명한 운동선수들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 8 동일한 문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언어 표현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 9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은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주의하거나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이다. ③에서는 똑같은 양을 마셔도 자동차 매연가스보다 담배 연기가 폐에 열 배 더 해롭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수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언어 표현을 강조하는 전략, ②, ④ 웃음이나 감동을 유발하는 전략, ⑤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사용되었다.

- 10 (사)에서 광고는 하나의 설득 전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설득 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11 광고는 수용자를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설득 전략을 사용하며, 때로는 비도덕적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데, 이때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지도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 12 **서술형**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광고를 허위 광고라고 한다.

- 13 제시된 광고는 '열라'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맛나 쿠키는 절대 흉내 못 낼 이 맛!"이라며 경쟁 업체의 상품을 폄하하고 있다.



2 다양한 설득 전략과 비판적 수용

163쪽

- 1 ③ 2 (가): 인쇄 광고, (나): 라디오 광고, (다): 텔레비전 광고
3 ① 4 ③, ⑤

- 1 (다)는 텔레비전 광고로, 영상을 중심으로 문자와 음성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의 인쇄 광고와 (나)의 라디오 광고에 사용된 전략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에는 일반인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드러내고 있고, '~하는 시간 ○초'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수용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은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주된 설득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물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수용자에게 친근감을 주는 한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라디오 광고로, 주로 수용자의 청각에 호소한다. 이 광고에서는 수용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하는 시간 ○초'와 같은 문구를 반복하여 언어 표현을 강조하는 전략을 주된 설득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④ (가)는 인쇄 광고이므로 수용자의 시각에, (나)는 라디오 광고이므로 수용자의 청각에, (다)는 텔레비전 광고이므로 수용자의 시청각 모두에 호소하고 있다. ⑤ (가)~(다)의 세 광고는 모두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여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2 **서술형** (가)는 문자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한 인쇄 광고이고, (나)는 음성 언어와 음향을 사용한 라디오 광고, (다)는 영상을 중심으로 문자 언어 및 음성 언어, 음향을 사용한 텔레비전 광고이다.

- 3 제시된 광고에서는 하회·양동 마을이 세계 유산에 등재된 점을 통해 역사 마을로서의 가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수용자들이 안동 하회 마을을 방문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 4 제시된 광고는 하루 두 알의 약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5kg을 감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와 날씬해지면 곧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문구를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이다.



죽집게 예상

164~165쪽

- 1 ④ 2 상품 광고, 인쇄 광고 3 ③ 4 ⑤ 5 ② 6 ④
7 ③ 8 ⑤

- 1 이 글은 광고의 다양한 설득 전략을 중심으로 광고의 역할과 목적, 종류,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의 설득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은 (가), ②는 (라), ③은 (나), ⑤는 (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2 **서술형** 제시된 광고는 새로 출시된 '초코렛'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상품 광고이자, 문자와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시각에 호소한 인쇄 광고이다.

- 3 라디오 광고는 사용 매체에 따른 광고의 한 종류로, 음성과 음향만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청각에 호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 오답 풀이 | ① 텔레비전 광고와 인터넷 광고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② 라디오 광고는 사용 매체에 따라 분류한 광고의 한 종류이다. ④ 인쇄 광고와 라디오 광고의 제작비에 대해서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⑤ 라디오 광고에서 언어 표현을 강조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외에도 인물을 내세우는 전략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략 등 다양한 설득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 4 제시된 두 광고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왼쪽의 광고는 나무에 콘센트가 달려 있는 모습의 합성 사진을 통해, 오른쪽의 광고는 일반인의 모습과 반복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수용자를 설득하고 있다.

- 5 제시된 광고는 국가고객만족도 1위라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는 설득 전략을 활용하였다.

- 6 (마)를 통해 광고의 설득 전략이 광고의 목적, 사용 매체, 광고를 수용하는 대상, 정해진 제작 기간이나 비용 같은 제작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광고의 설득 전략을 선택할 때는 광고 제작자의 기호가 아닌 광고를 수용하는 대상의 기호를 고려해야 한다.

- 7 ③의 커피 광고는 케냐 원두로 만들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커피의 고소한 맛을 특징으로 내세운 광고이다. 따라서 ③은 비도덕적인 설득 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일주일이면 무조건 5kg를 감량할 수 있다며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는



므로 허위·과장 광고이다. ② ‘열라’라는 비속어를 사용하고 경쟁 업체인 ‘맛나쿠키’의 상품을 폄하하였으므로, 언어 파괴 광고이자 비방 광고이다. ④ 경쟁 업체인 ○○ 전자 제품을 촌스럽게 묘사 누가 쓰이며 폄하하고 있으므로 비방 광고이다. ⑤ 두 달만 다니면 합격할 수 있다며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허위·과장 광고이다.

- 8 수용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해도 비속어나 은어는 우리의 언어문화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66~167쪽

1 ⑤ 2 ⑤ 3 ④ 4 ④ 5 인쇄 광고는 문자와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시각에 호소하는 반면, 텔레비전 광고는 영상을 중심으로 문자와 음성을 동시에 사용하여 수용자의 시청각 모두에 호소한다. 6 언어 표현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7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 •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현하고 있다.

- 1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허위 광고,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과장 광고, 경쟁 업체를 폄하하는 비방 광고,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광고, 비속어나 은어를 사용하는 언어 파괴 광고 등이 비도덕적인 설득 전략을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 B에는 이러한 비도덕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지 않았다.
- 2 광고는 수용자를 성공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설득 전략을 사용하지만, 꼭 많은 설득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⑤와 같은 평가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
- 3 기업 광고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 기업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보다는 감동을 유발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목적에 따라 광고를 분류할 때, 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기업 광고라 하고, 상품 광고와 기업 광고를 묶어 상업 광고라고 한다. 한편 사용 매체에 따라 광고를 분류할 때, 음성과 음향만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라디오 광고이고, 영상을 중심으로 문자와 음성을 동시에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텔레비전 광고와 인터넷 광고이다.
- 5 **서술형** (나)를 통해 사용하는 매체의 특성에 따른 광고의 표현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인쇄 광고는 그림, 문자, 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청자의 시각에 호소하는 반면, 텔레비전 광고는 영상을 중심으로 문자와 음성을 동시에 사용하여 수용자의 시청각 모두에 호소한다.
- 6 **서술형** 제시된 광고는 동일한 문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언어 표현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 7 **서술형** 제시된 광고는 하루 두 알의 약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5kg를 감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와 날씬해지면 곧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이다.

02. 마음의 양식, 읽기



읽기란 무엇인가

171쪽

1 ③ 2 ④ 3 ④ 4 삶의 즐거움, 감동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5 ③ 6 느끼고 깨닫기 위한 읽기 7 ⑤ 8 ⑤

- 1 이 글은 글 읽기의 즐거움과 글을 읽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가)에서 글쓰이는 글은 기억과 상상의 확장이며, 인간이 만든 수많은 도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도구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⑤는 (나)를 통해, ②, ③은 (마)를 통해 알 수 있다.
- 3 (가)에서 글은 기억과 상상의 확장이며, 이런 글을 통해 인간은 현실의 삶을 넘어서서 과거나 미래를 넘나드는 초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ㄱ, ㄴ. 글 이외의 다른 도구들의 특징에 해당한다.
- 4 **서술형** (나)에서 글의 내용을 소유하게 되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삶의 즐거움’, 가슴이 설레거나 눈물이 핑 도는 듯한 ‘감동의 즐거움’,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 5 (바)에서 현대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절대시되고 과학의 발전과 경제 성장이 우선시된다고 하였을 뿐, 과학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글을 읽는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글 읽기의 개인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② 감동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글 읽기에 대한 설명이다. ④ 삶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글 읽기에 대한 설명이다. ⑤ 글 읽기의 사회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 6 **서술형** (바)에서 과학의 발전과 경제 성장이 우선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느끼고 깨닫기 위한 읽기’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7 (나)에서 글쓰이는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책 속에 담긴 글의 내용을 소유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책을 읽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8 (바)에서 글쓰이는 글 읽기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웃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싹틔게 하는 마음의 발이 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읽기란 무엇인가

172쪽

1 ② 2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는 것, 읽고 싶은 마음가짐을 갖추는 일 3 ⑤ 4 읽기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여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1 (사)에서 문자 언어보다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 인터넷, 영화, 텔레비전, 만화와 같은 화상 매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글 읽기의 가치가 점차 밀려나고 있다고 하였다.
- 2 **서술형** (아)에서 글쓴이는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읽고 싶은 마음가짐을 갖추는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였다.
- 3 (사)에서 '적극적인 글 읽기'는 글의 선택, 읽기 속도, 내용의 이해, 감상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4 **서술형** 글쓴이는 읽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적이라고 한 것이다.

족집게 예상

173~174쪽

1 ① 2 ④ 3 감동의 즐거움 4 인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웃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싹트게 하는 마음의 발 5 ④ 6 ② 7 멋진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 1 이 글에서 글을 읽음으로써 초월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환상의 세계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현실의 문제에서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 ② (라)에서, 인간과 사회, 자연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그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글을 읽는다고 하였다. ③ (사)에서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아야 하고 읽고 싶은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은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책을 책장에 꽂아 두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담긴 글의 내용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⑤ 글 읽기의 개인적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가)에서 글은 신체의 일부가 아닌 기억과 상상의 확장이라고 하였다.
- 3 **서술형** (마)에서 사람들은 심심풀이나 재미로 책을 읽으면서 환상의 세계에 빠져 보기도 하고 감동을 느끼기도 하면서 기쁨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는 가슴이 설레거나 눈물이 핑 도는 듯한 '감동의 즐거움'과 관계가 깊다.
- 4 **서술형** (바)에서 글쓴이는 현대 사회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느끼고 깨닫기 위한 읽기가 꼭 필요한 읽기가 되었다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5 다른 도구들은 인간의 신체를 부분적으로 확장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글은 신체의 일부가 아닌 기억과 상상을 확장한 것으로, 인간이 현실의 삶을 넘어서서 과거나 미래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초월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도구 중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 6 (가)~(사)의 글쓴이는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읽고 싶은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 글의 글쓴이는 몇 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책을 읽거나 틈틈이 자투리 시간을 내서 책을 읽으며 읽기를 생활화하였다.
- 7 **서술형** ① 문단에서 글쓴이는 멋진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과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만나며 유한한 인간의 삶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틈만 나면 책을 읽는다고 하였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75~176쪽

1 ① 2 ② 3 ③ 4 ① 5 ② 6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그것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함이다. 7 가장 추상적인 것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8 읽기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여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 1 이 글은 글 읽기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글을 읽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글 읽기의 태도를 제시한 설명하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은 ①과 같은 방법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② 주장하는 글, ③ 소설, ④ 수필, ⑤ 문학 작품을 읽을 때의 방법으로 적절하다.
- 2 <보기>는 바람직한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에 관한 고민을 담고 있으므로, <보기>의 느낀 점을 쓴 학생은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었을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감동의 즐거움은 마음의 정서와 감동을 느끼는 즐거움으로, 인간의 본성을 되찾게 하는 읽기라고 할 수 있다. ③ <보기>에 나타난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과 이웃을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④ <보기>에는 글을 읽은 후의 감상만 나타나 있을 뿐, 읽기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⑤ 삶의 즐거움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즐거움이다.
- 3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기 쉽다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느끼고 깨닫기 위한 읽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나)의 뒤에서 현대 사회에서 느끼고 깨닫기 위한 읽기가 더 중요해진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 4 (라)에서 글쓴이는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읽고 싶은 마음가짐을 갖추려는 두 가지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c. (라)에서 읽기를 생활화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d. (라)에서 읽기를 생활화한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읽기를 생활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는 않았다. e. (가)에서 읽지도 않고 책을 책장에 꽂아 두는 것은 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읽기를 생활화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 5 적극적인 읽기란 글의 선택에서부터 읽기 속도, 내용의 이해, 감상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며 읽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②의 '다운이'는 읽기 싫은 책을 숙제 때문에 억지로 읽는 것이므로 ①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6 **서술형** 이 글의 글쓴이는 글 읽기의 세 가지 즐거움(읽의 즐거움, 감동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글을 읽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 읽기의 세 가지 즐거움 중, '읽의 즐거움'에 관한 내용은 (나)의 첫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글쓴이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그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하였다.

- 7 **서술형** (다)에서 글쓴이는 화상 매체의 등장으로 글 읽기의 가치가 밀려나고 있다고 하며, 화상 매체와 비교하여 글 읽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글 읽기의 장점을 바탕으로 글 읽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8 **서술형** (다)에서 글쓴이는 적극적인 읽기에 대해 설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읽기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다.

03.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



독서 기행의 의미와 가치

178~179쪽

1 ⑤ 2 ① 3 ④ 4 ⑤ 5 ③ 6 김유정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 작품을 더 잘 감상하는 방법 7 ⑤

- 1 이 글은 책을 읽고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독서 기행문이다. 이 글에는 글쓴이의 독서 기행 준비 과정이 드러나지 않으며, 구체적인 독서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 군산은 글쓴이가 작년에 독서 기행을 간 '채만식 문학관'이 있는 곳이다. 이번 독서 기행의 장소인 '김유정 문학촌'은 춘천에 있다.

- 3 글쓴이는 '김유정 문학촌'에서 '김유정 작가'의 문학 세계에 대한 촌장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 오답 풀이 | ① (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라)에서 글쓴이가 '전시관'에서 '김유정 작가'의 문학 연보와 작품들을 살펴보았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글쓴이가 '김유정 작가'는 1학년 때도 배운 적이 있어 익숙하다고 하면서 '김유정 작가'의 대표작과 작품 성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⑤ (마)에서 글쓴이가 '실례 마을'에서 '동백꽃'에 나오는 산기슭과 '봄·봄'의 봉필 영감의 집을 구경했다고 하였다.

- 4 (다)를 통해 글쓴이가 이미 학교에서 작품이 창작된 시대 상황뿐만 아니라 작가의 삶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배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글쓴이는 전시관에서 '김유정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서 글이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였다. 작가의 작품들이 단순한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드러내어 후세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6 **서술형** (사)에서 글쓴이는 이번 독서 기행에서 '김유정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 작품을 더 잘 감상하는 방법 등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였다.

- 7 (사)에서 글쓴이는 독서 기행에 참여하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족집게 예상

180~181쪽

1 ① 2 ① 3 ④ 4 ② 5 글이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
6 ②, ③ 7 ⑤ 8 ④

- 1 (나)에서 글쓴이는 촌장님으로부터 '김유정 작가'의 문학 세계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② (가)에서 글쓴이는 1학년 때 '김유정 작가'에 대해 배운 적이 있어 익숙하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촌장님과 함께 '실례 마을'을 돌면서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을 구경했다고 하였으며 작가의 작품을 바탕으로 멋진 이야기 길을 만든 것이 신기하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생가 주변의 집들이 중부 지역의 집 구조와 다르게 폐쇄적으로 지어져 있어서 신기했다고 하였다. ⑤ (마)에서 글쓴이는 독서 기행을 통해 책으로 읽은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독서 기행을 추천한다고 하였다.

- 2 글쓴이는 먼저 '김유정 생가'의 대청마루에서 촌장님의 강연을 들은 후에 '생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음으로는 '전시관'에 들러 '김유정 작가'의 문학 연보와 작품들을 살펴보고, '실례 마을'에 가서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공간들을 구경한 후 마지막으로 '김유정역'에 갔다.



- 3 글쓴이는 촌장님의 강연을 듣고 소설 '동백꽃'에 나오는 동백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백나무의 꽃이 아니라 생강나무의 꽃이라는 점, 소설 '봄·봄'의 제목 사이에 가운데점이 들어간 이유, 작가가 작품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무엇을 작품에 담아 전하고자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 오답 풀이 | ㄱ. (나)에서 글쓴이가 강연을 듣기 전에는 '동백꽃'과 '봄·봄'의 줄거리 정도밖에 몰랐었다고 한 것에서 글쓴이가 독서 기행을 가기 전에도 두 작품의 줄거리를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ㄴ. 글쓴이는 촌장님의 강연을 통해 소설 '동백꽃'에 나오는 동백꽃이 생강나무의 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동백꽃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4 이 글에서 '김유정 작가' 외에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의 글쓴이는 '김유정 작가' 및 그의 작품들과 관련된 장소만을 둘러보고 있다는 점에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5 **서술형** (다)에서 글쓴이는 '김유정 작가'의 문학 연보와 작품들을 통해 '글이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6 '정은이'의 말로 보아, 학생들이 '김유정 작가'를 독서 기행의 작가로 선정한 것은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고 '김유정 작가'의 작품을 읽고 토론할 때 동아리 친구들이 재미있어했기 때문이다.

- 7 학생들은 '김유정 문학촌'에 문의하여 자신들의 독서 기행 일정을 얘기하고, 안내를 부탁드려 보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독서 기행 일정은 학생들이 직접 짜는 것이므로 ⑤는 학생들이 독서 기행을 위해 준비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 8 독서 기행 홍보 광고는 다른 친구들도 함께 독서 기행을 가도록 설득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므로, 독서 기행의 단점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난도로 100점 다지기

182~183쪽

1 ⑤ 2 ⑤ 3 ④ 4 ② 5 책으로 읽은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6 독서와 독서 기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어 선생님들의 평가를 내세움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1 독서 기행문을 작성하는 것은 독서 기행을 마친 뒤에 해 볼 수 있는 활동이므로 독서 기행의 일정표를 짜는 과정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2 이 글은 글쓴이가 '김유정 문학촌'을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이다.
- 3 글쓴이는 소설 '동백꽃'과 '봄·봄'의 배경이 되었던 공간들이 있는 '실례 마을'을 구경하면서 작가의 작품을 바탕으로 멋진 이야기 길을 만들었다는 것에 신기해하였다.

- 4 (나)와 (다)를 통해 글쓴이는 촌장님으로부터 '김유정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에 대한 강연을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②는 '김유정 작가'와 동시대에 활동한 '김동리 작가'에 대한 내용이므로 촌장님이 했을 법한 강연 내용과 거리가 멀다.

| 오답 풀이 | ①, ⑤ '김유정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에 대한 내용이므로, 촌장님의 강연 내용으로 적절하다. ③ 글쓴이가 촌장님의 강연을 통해 소설 '봄·봄'의 제목에 가운데점이 들어간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촌장님의 강연 내용으로 적절하다. ④ '김유정 작가'가 활동했던 당시 한국 문단의 경향에 대한 내용이므로, 촌장님의 강연 내용으로 적절하다.

- 5 **서술형** (사)에서 글쓴이는 독서 기행을 통해 책으로 읽은 것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독서 기행을 추천하고 싶다고 하였다.

- 6 **서술형** 제시된 독서 기행 홍보 광고는 독서와 독서 기행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어 선생님들의 평가를 내세워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선택 학습

184~185쪽

선택 01 1 ②, ④ 2 ④ 3 ⑤ 4 ②

선택 02 1 ④ 2 ④ 3 책은 생각의 균형을 잡아 준다. 4 ⑤

선택 01

- 1 (가)~(다)는 모두 환경과 관련된 공익 광고로, 문자와 사진 등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시각에 호소하는 인쇄 광고이다.
- 2 (나)는 종이컵을 만들려면 많은 나무를 베어야 하기 때문에 종이컵을 쓸수록 지구 온난화가 심해진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물건을 낭비하지 말자는 메시지와는 거리가 멀다.
- 3 이 광고는 승용차를 타면 탈수록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숲이 사라진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숲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4 (나)는 숲을 지키기 위해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다)는 하나뿐인 지구를 내 집처럼 보살피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광고 문구로는 ②가 적절하다.

선택 02

- 1 글쓴이는 책이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싶고 앞으로의 삶도 책을 통해 재미있게 보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강박적으로 책을 읽는다기보다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글쓰기가 새로운 것,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서재에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은 독서에 대한 글쓰기의 열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책을 최대한 많이 구입해야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3 **서술형** 글쓰기는 책이 생각의 균형을 잡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글쓰기는 두꺼운 점자 책을 넘기다 보면 어깨가 아프고(d) 바른 자세로 읽어야 집중도 훨씬 잘 되기 때문에(c) 점자 책을 책상에 앉아서 본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a. 글쓰기는 어렸을 적 시신경이 손상되어 책을 눈이 아니라 손으로 읽거나 귀로 듣는다. b. 녹음 도세(듣는 책)를 들을 때 글쓰기가 앉아서 듣거나 걸어 다니면서 듣는 이유이다.

5 (라)에서는 글 읽기가 속도가 느리고 다양한 감각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뒤이어 글 읽기의 장점과 적극적인 읽기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④는 (라)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6 (마)에서 글쓰기는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c) 읽고 싶은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ㄴ)고 하였다. 또한 읽기를 생활화한 사람을 보고 배울 수도 있다(ㄹ)고 하였다.

7 **서술형** 〈보기〉의 글쓰기는 소설 ‘동백꽃’을 읽고 순수하고 순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으므로, 가슴이 설레거나 눈물이 핑 도는 듯한 ‘감동의 즐거움’을 얻었을 것이다.

8 (나)에서 글쓰기가 촌장님의 강연을 듣기 전에는 ‘동백꽃’과 ‘봄·봄’의 줄거리 정도밖에 몰랐다고 하였으므로, 글쓰기는 독서 기행을 가기 전부터 두 작품의 줄거리를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글쓰기가 ‘전시관’에서 ‘김유정 작가’의 작품들을 보며 느낀 점으로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④, ⑤ (나)에서 글쓰기는 촌장님으로부터 ‘김유정 작가’의 문학 세계에 대한 강연을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작가가 작품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9 **서술형** 글쓰기는 ‘김유정 생각’의 대청마루에서 촌장님의 강연을 들은 후에 ‘생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음으로는 ‘전시관’에 들러 ‘김유정 작가’의 문학 연보와 작품들을 살펴보고, ‘실례마을’에 가서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공간들을 구경한 후 마지막으로 ‘김유정역’에 갔다.

10 독서 기행문은 책을 읽고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 기행을 가기 전부터 독서 기행문의 제목이나 내용 정리 방법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11 (가)~(나)의 글쓰기는 글의 도구적 특성을 바탕으로 글 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해, (다)~(라)의 글쓰기는 자신이 책을 읽는 이유를 바탕으로 책 읽기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마)의 글쓰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세 글을 통해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12 **서술형** (가)~(나)의 글쓰기는 기억과 상상의 확장인 글을 읽음으로써 현실의 삶을 넘어서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초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고, (다)~(라)의 글쓰기는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책 읽기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사건들과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13 (마)의 글쓰기는 책이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강박적으로 책을 읽으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14 (라)에서 글쓰기는 책 읽기가 소원해지면 머리가 비어 가는 느낌이 들어 몇 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책 읽기에 몰입한다고 하였다.

대단원 평가

186~189쪽

1 ③ 2 ② 3 ㉠: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다. ㉡: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4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다. /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다. / 경쟁 업체의 상품을 폄하한다. /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표현한다. / 비속어나 은어 등을 사용한다. 5 ④ 6 ④ 7 감동의 즐거움 8 ③ 9 전시관, 김유정역 10 ③ 11 ③ 12 현실의 삶을 넘어서 초월적인 삶(시공간을 초월하는 삶) 13 ④ 14 ②

1 (라)에서 글쓰기가 광고를 바르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전략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광고에서 비도덕적인 설득 전략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 텔레비전 광고는 영상을 중심으로 문자와 음성을 동시에 사용하여 수용자의 시청각에 호소한다고 하였다. ④ (다)의 ‘둘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⑤ (다)의 ‘셋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2 제시된 광고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공익 광고이다. 비도덕적인 설득 전략이 사용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서술형** ㉠에는 유명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사용하여 현현을 유도하고 있고, ㉡은 종이컵을 많이 사용할수록 숲이 줄어들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4 **서술형** 비도덕적인 설득 전략을 사용한 광고의 종류에는 허위 광고, 과장 광고, 비방 광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광고, 언어 파괴 광고 등이 있다.



최종 모의고사

중간고사 1회

192~197쪽

1 ③ 2 서화 전적과 골동은 조선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③ 4 ① 5 ④ 6 ③ 7 ①, ④ 8 글쓴이는 우연히 “전국 아동 작문집”을 읽게 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였다. 9 ⑤ 10 ① 11 ⑤ 12 ⑤ 13 ⑤ 14 ③ 15 ③ 16 만중운산 17 ③ 18 ② 19 ② 20 ② 21 ⑤ 22 ③ 23 ③ 24 ① 25 개인의 노력을 통해 주변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 1 (다)에서 ‘마에다’와 ‘신보’가 놀라는 이유는 ‘전형필’이 ‘천학 매병’을 구입하기 위해 한 푼도 깎지 않고 거금 2만 원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전형필’은 주위 사람들의 당부와 조언, 아버지의 유언 등을 떠올리며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② (다)에서 ‘전형필’은 서화 골동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도 좋을지를 먼저 생각했다고 하였다. ④ ‘전형필’의 아버지는 그에게 교육 사업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유언을 남겼지만, ‘전형필’은 자신의 재산을 서화 전적과 골동을 지키는 일에 활용하기로 결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⑤ (나)에서 ‘오세창’이 “그러나 자네는 조선의 자존심이기에 지키겠다고 하니, 그 뜻이 가상하군.”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나라를 위해 서화 전적을 지키려는 ‘전형필’의 뜻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서술형** (나)에 제시된 ‘오세창’의 말 중, “자네는 조선의 자존심이기에 (서화 전적과 골동을) 지키겠다고 하니, 그 뜻이 가상하군.”에서 ‘전형필’이 서화 전적을 모으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3 (가)를 통해 ‘오세창’은 ‘전형필’에게 서화를 모으려면 재물과 안목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오랜 인내와 정성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4 ‘전형필’이 거금 2만 원을 주고 ‘천학 매병’을 인수한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씹씹이가 헤프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5 전기문의 종류에는 자서전, 회고록, 전기, 평전, 열전 등이 있다. 어떤 인물의 활동이나 업적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쓴 글은 ‘자서전’이 아니라 ‘평전’에 해당한다.
- 6 (라)의 “글이 걸어 나왔어요.”라는 말은 고민하면서 생각을 짜내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글이 술술 잘 써졌다는 의미이므로, ‘고무신’을 매우 고민해 썼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7 (라)를 통해 ‘외가 형님’이 글쓴이가 쓴 글에 대해 실감 나게 잘 썼다고 평을 해 주었음을, (마)를 통해 글쓴이에게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구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8 **서술형** 이 글의 글쓴이는 우연히 집에서 “전국 아동 작문집”을 읽은 일을 계기로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글을 꾸준히 써 가던 중에 자신이 글쓰기에 재능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재능을 키워 나가 결국 시인이 되었다.

- 9 글쓴이는 원래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으나, 현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찾고 있다.

- 10 이 글에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속담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라)에서 임명장 사진을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출생 - 유치원 - 초등학교 - 현재’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④ (마)에서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⑤ 소풍을 간 경험, 부회장에 당선된 경험 등 구체적인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 11 이 글의 글쓴이는 현재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가치 목록 중 ‘타인의 이름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성품’이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 12 자서전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쓴다.

- 13 <보기>는 자서전 쓰기의 과정 중, ‘자신의 삶 계획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은 현재 자신의 바람을 밝힌 부분으로, ‘자신의 삶 계획하기’ 단계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 14 (가)~(다)는 시적 대상에 대한 기다림과 그리움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 15 ‘어룬 입’은 사랑하는 입을 높여 부르는 말로, 입이 시적 화자보다 나이가 어린지는 알 수 없다.

- 16 **서술형** ‘만중운산’은 ‘점점이 겹쳐 구름이 덮인 산’이라는 뜻으로 시적 화자가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리운 입과 시적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 17 (다)에서 말하고 있는 ‘너’는 작품 내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존재(연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작품이 군부 독재라는 시대적 현실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너’는 ‘자유, 민주화, 평화로운 세상’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8 (가)의 “두 번 다 손을 안 든 애들도 많았다.”를 통해 ‘영래’가 ‘반 아이들’ 전체의 지지를 받으며 급장으로 선출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종하’는 ‘영래’와 함께 폭력으로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교생 선생님’을 모욕하는 ‘종잇조각’을 써서 돌리는 등 잘못된 행동을 일삼고 있다. ③ ‘종잇조각’에는 ‘교생 선생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④ (나)에서 ‘영래’는 학급비를 횡령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동열이’를 배반자로 몰고 있다. ⑤ (나)에서 ‘반 아이들’은 ‘동열이’가 ‘영래’에게 맞은 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라)에서 ‘나’가 ‘영래’에게 저항하자 ‘나’에게 동조하며 ‘영래’에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 19 (마)에서 ‘나’는 ‘아우’에게 공동체적인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여럿이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 20 이 글에서 '영래'는 '반 아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여 통제하려는 인물이다. 이 작품이 교실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래'는 민중들을 폭압하는 정치 권력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21 (마)에서 '그이'는 '교생 선생님'이 아니라 '정의, 민주주의' 등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를 의미한다.
- 22 '엘제아르 부피에'는 자신이 생각한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므로, 우유부단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3 '나'가 '엘제아르 부피에'를 만났을 때 그는 아들과 아내를 잃고 외딴 황무지에 홀로 들어와 3년 전부터 도토리를 심으며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있었다.
- 24 "낙숫물이 댕돌을 뚫는다"는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꾸준히 나무를 심어 황무지를 풍요로운 땅으로 바꾼 '엘제아르 부피에'의 삶을 드러내기에 적절하다.
- | 오답 풀이 |** ② 몹시 고생을 하는 삶도 좋은 운수가 터질 날이 있다는 말이다. ③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는 말이다. ④ 젊은 시절의 고생은 장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경험이 되므로 그 고생을 달게 여기라는 말이다. ⑤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나음을 이르는 말이다.
- 25 **서술형** 이 글의 '엘제아르 부피에'는 꾸준히 나무를 심어 황무지를 풍요로운 땅으로 바꾸고, 그 결과 마을 사람들 역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보기>의 '트레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숙자들을 도와주어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 냈다.

중간고사 2회

198~203쪽

- 1 ⑤ 2 ① 3 ⑤ 4 구리거울 5 ③ 6 ⑤ 7 ⑤ 8 글쓰기 9 ④ 10 ② 11 ⑤ 12 ④ 13 (가)~(다)는 출생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라)는 자신의 삶에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4 ② 15 동짓달 기나긴 밤 16 ⑤ 17 ③ 18 ⑤ 19 ② 20 '나'는 '노깅'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노깅'에 다시 들어간 것이다. 21 ④ 22 ② 23 ③ 24 ② 25 인간의 힘이란 참으로 놀랍다.
- 1 (가)~(다)의 '전형필'은 우리의 서화 전적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라)의 시적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가)~(다)의 '전형필'과 (라)의 시적 화자 모두 일제 강점기의 식민 통치에 협조하거나 순응하고 있지 않다. ② (라)의 시적 화자와 달리 (가)~(다)의 '전형필'은 치열하게 노력하여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지켜 냈다는 점에서 시대 현실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라)의 시적 화자와 마찬가지로 (가)~(다)의 '전형필' 역시 올바른 역사인식을 지닌 인물이다. ④ (가)~(다)의 '전형필'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에 순응했다고 볼 수 없다. (라)의 시적 화자는 실천적인 행동은 결여되어 있지만 불합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 치열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 (나)에서 '전형필'이 '마에다'에게 2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아, '천학 매병'은 '마에다'가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다)를 통해 '전형필'이 '마에다'의 마음이 바뀌어 '천학 매병'을 인수하지 못할 상황을 우려하여 ①과 같이 행동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4 **서술형** (라)에서 '구리거울'은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적 화자의 욕된 삶을 비추어 주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5 (가)~(마)는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시간 순서대로 구성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삶에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현재 시인이 된 글쓰이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며 쓴 회고적인 성격의 자서전이다. ② '~요'와 같이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④ 글쓰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숨은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⑤ 글쓰이는 "전국 아동作文집"을 읽으며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된 일화, '외가 형님'과 '선생님'의 칭찬을 받은 일화 등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글쓰이가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이룬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6 (라)를 통해 '선생님'께 처음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은 글쓰이가 글쓰기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7 (가)~(마)의 글쓰이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찾고, 발견한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고난 재능이 중요하다는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8 **서술형** (가)~(마)의 글쓰이의 가슴을 뛰게 하고, 글쓰이가 열정을 쏟아 몰입한 일은 글쓰기였다.
- 9 ①은 자서전 쓰기의 과정 중 '구성하기' 단계로, 이 과정에서는 자신의 삶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구성 방식을 모색하여 그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 보는 활동을 한다.
- 10 (가)~(다)와 (라)는 자신의 삶의 전체 혹은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 자서전이다. 글쓰이 혼자 읽을 목적으로 그날그날의 경험을 기록하는 글은 '일기'이다.
- 11 (가)~(다)에서 글쓰이가 좋아하는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2 글쓰이는 자신의 바람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하였다.

13 **서술형** (가)~(다)는 출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 반면, (라)는 자신을 설레게 했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14 (가)~(다)의 시적 화자는 모두 곁에 없는 대상과의 재회를 기다리며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15 **서술형** (가)에서 ‘동짓달 기나긴 밤’은 겨울의 긴 밤으로, 사랑하는 임이 오지 않아 기다림과 그리움에 길게 느껴지는 부정적인 시간이다.

16 ‘지는 잎’, 부는 바람’은 임을 빚댄 자연물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하게 하는 자연물로서의 기능을 한다.

| 오답 풀이 | ① 초창의 ‘하는 일이 다 어리다(어리석다)’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시적 화자의 자조적인 태도가 깃들어 있다. ②, ③ ‘만중운산’은 ‘첩첩이 겹쳐 구름이 덮인 산’이란 의미로 시적 화자가 현재 위치한 공간적 배경이면서 동시에 시적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만중운산’은 ‘어느 임 오리 마는(어떤 임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의 진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지는 잎’과 ‘부는 바람’ 소리를 임의 발자국 소리로 착각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통해 시적 화자가 곁에 없는 임을 몹시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7 오지 않는 ‘너’를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던 시적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는 부분은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이다.

18 (가)~(마)의 ‘노깡’은 ‘나’가 몇 번이나 벼른 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바)의 ‘그(척대)의 질서와 왕국’은 ‘나’가 순응함으로써 특권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19 (다)에서 ‘종하’가 ‘종이쪽지’를 찢은 것은 ‘영래’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 아니라 ‘나’와 ‘반 아이들’의 저항에 따른 것이다.

20 **서술형** ‘노깡’에서의 무서운 경험을 떨쳐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나’는 ‘교생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노깡’에 다시 들어가 공포감을 극복한다.

21 ㉠은 불의에는 무관심한 채 편안함과 안락함을 상징하는 ‘안방’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다)에서 두 번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엘제아르 부피에’가 이루어 놓은 숲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였다.

23 (라)에서 나무를 심은 후 마을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하며 집도 짓고, 채소와 꽃을 심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엘제아르 부피에’를 도와 나무를 심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4 ‘엘제아르 부피에’는 죽어 가는 땅을 살리고자 나무를 심기 시작했으므로 ②가 적절하다.

25 **서술형** (마)에서 ‘나’가 혼자만의 노력으로 황무지를 풍요로운 땅으로 바꾼 ‘엘제아르 부피에’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힘이란 참으로 놀랍다는 점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기말고사 1회

204~209쪽

1 ③ 2 ③ 3 ⑤ 4 ② 5 ① 6 ③ 7 ⑤ 8 ② 9 ④
10 ③ 11 ③ 12 ⑤ 13 검소한 것을 숭상해야 한다. 14 ⑤
15 ② 16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있는가.
17 ② 18 ⑤ 19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현 20 ③
21 ③ 22 ① 23 기억과 상상 24 ㉠: 전시관, ㉡: 실례 마
을 25 ④

1 ‘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갈 것이다.’에서 높임의 대상은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엄마’이다. 이와 같이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의 경우, ‘드리다’, ‘모시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 오답 풀이 | ① ‘가다’라는 행위의 주체인 ‘엄마’를 높이고 있다. ② ‘여쭙다’라는 행위의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④ ‘있다(계시다)’라는 행위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⑤ ‘하다’라는 행위의 주체인 ‘엄마’를 높이고 있다.

2 ③에서 높임의 대상은 ‘승우’가 아니라 ‘선생님’이므로 ‘오시래’를 ‘오라고 하셔’ 또는 ‘오라셔’로 고쳐야 올바른 높임 표현이 된다.

3 ‘승우’와 ‘지훈이’ 사이의 높임 표현이 달라진 이유는 시간이 흘러 둘 사이가 처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나)의 ‘선배’에서 알 수 있듯이 둘 사이의 상하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

4 ㉠은 ‘했다’, ㉡은 ‘많았다’, ㉢은 ‘생각한다’, ㉣은 ‘끝났다’, ㉤은 ‘되겠지만’, ‘될 텐데’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앞선 ㉠, ㉡, ㉢은 과거 시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는 시점과 일치하는 ㉣은 현재 시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뒤선 ㉤은 미래 시제에 해당한다.

5 ‘책이 누나에게 읽힌다.’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동을 당하는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누나가 책을 읽는다.’를 사동 표현으로 바꾸면 ‘엄마가 누나에게 책을 읽힌다.’가 된다.

6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이다. ③은 생략된 주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도록 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동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①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 ‘찍다’에 피동 접사 ‘-히-’가, ② ‘보다’에 피동 접사 ‘-아-’가, ④ ‘물다’에 피동 접사 ‘-리-’가, ⑤ ‘찢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7 ‘-게 되다’에 의한 피동 표현과 달리 일부 명사에 ‘-되다’를 붙여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는 능동 표현의 주어는 부사어로, 목적어는 주어로 각각 바뀐다.

8 ㉠은 능동 표현이고 ㉡은 피동 표현이다.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이유는 동작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9 동사 앞에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 표현과 어간에 ‘-지 못하다’를 결합해 실현되는 긴 부정 표현 사이에는 의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 10 주장하는 글쓰기의 절차 중, ‘개요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주장하는 글의 구성과 흐름을 고려하여 글의 열개를 짜고 개요표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 | 오답 풀이 |** ① ‘주장하는 글쓰기’, ② ‘문제 상황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 정하기’, ④ ‘근거 마련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⑤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특정 기준을 중시하여 평가하기보다 내용, 구성, 표현 등의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글을 평가해야 한다.
- 11 주장을 요약하고 전망이나 과제를 덧붙이는 것은 ‘결론’을 쓸 때 적절한 방법이다.
- 12 <보기>의 ‘준수’는 외모도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로 ⑥가 적절하다.
- 13 **서술형** <보기>의 글쓴이는 겉치레에만 힘쓰는 세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치스러운 풍속을 없애고 검소한 것을 숭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4 (가)의 “찬성 측의 입론으로 시작하고 반론은 반대 측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와 (라)의 “그럼 이제 반대 측부터 반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라는 사회자의 말을 통해 반론은 찬성 측이 아니라 반대 측이 먼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5 (다)에서 반대 측은 사형 제도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16 **서술형** (나)에서 찬성 측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없다는 주장을, (다)에서 반대 측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주장을 각각 펼치고 있다.
- 17 반대 측 ①은 “아니, 그게 아니죠.”라고 말하며 상대 토론자의 발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 측 ②는 “찬성 측은 지금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데”라고 말하며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 18 (라)에서 광고는 여러 개의 설득 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인다고 하였으며, (가)에서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설득이라고 하였다.
- | 오답 풀이 |** ①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설득이다. ② 상품 광고와 기업 광고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 광고로 구분하기도 한다. ③ 사용 매체에 따라 인쇄 광고, 라디오 광고, 텔레비전 광고, 인터넷 광고로 분류한 것이다. ④ 텔레비전 광고와 인터넷 광고는 사용 매체는 다르지만 문자, 음성, 영상 등을 활용하여 수용자의 시청각 모두에 호소한다.
- 19 **서술형** 일주일이면 무조건 5kg을 감량할 수 있고, 체중을 감량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나 과장에 해당한다.

- 20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다른 광고들과 달리 ③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품 광고이다.
- 21 (마)에서 글쓴이는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22 (나)~(라)에서 글쓴이는 글을 읽는 세 가지 이유(지식을 얻기 위해, 정서와 감동을 느끼고 여유를 얻기 위해, 느끼고 깨달아 마음의 휴식을 얻기 위해)를 설명하고 있다.
- 23 **서술형**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도구인 글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인 기억과 상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설명을 바탕으로 글이 기억과 상상의 확장임을 짐작할 수 있다.
- 24 **서술형** 글쓴이는 ‘김유정 문학촌’에 도착하여 촌장님의 강연을 들은 뒤 ‘전시관’에 가서 ‘김유정 작가’의 문학 연보와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그 이후 촌장님과 함께 ‘실례 마을’을 돌면서 소설 속 배경을 구경하고 ‘김유정역’을 둘러보았다.
- 25 독서 기행을 하며 ‘김유정 작가’의 작품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 글쓴이의 모습을 통해 독서 기행이 ④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말고사 2회

210~215쪽

1 ⑤ 2 ③ 3 예술제에 오십시오. 4 ④ 5 사동, 피동
6 ② 7 ② 8 ① 9 ⑤ 10 ② 11 ⑤ 12 ② 13 내면
의 아름다움은 영원하기, 내면의 성숙 14 ⑤ 15 ① 16 ③
17 ④ 18 ② 19 언어 표현을 강조한다. 20 ⑤ 21 ③
22 ② 23 깨달음의 즐거움 24 ④ 25 읽고 쓰는 문화

- 1 <보기>는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에 대한 설명이다. ⑤에서 높임의 대상은 서술의 주체인 ‘민지’가 아니라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이다. ⑥는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① ‘께서’와 ‘-사-’를 통해 ‘가다’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② ‘께서’와 ‘자다’의 높임말인 ‘주무시다’를 통해 ‘주무시다’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③ ‘께서’와 ‘-사-’를 통해 ‘출근하다’의 주체인 ‘삼촌’을 높이고 있다. ④ ‘께서’와 ‘-사-’를 통해 ‘오다’의 주체인 ‘아저씨’를 높이고 있다.
- 2 ‘눈’은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높여야 할 대상인 ‘할머니’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할머니의 눈’을 통해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여야 하므로 ‘침침하다’에 ‘-시-’를 붙여 표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높여야 할 대상과 관련된 것(신체의 일부, 소유물, 생각 등)을 통해 높임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 3 **서술형** 공식적인 상황에 쓰이는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가 있다. 이 중 ‘아주 높임’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하십시오체’이므로 초대장의 문구는 ‘예술제에 오십시오.’로 고쳐 써야 한다.



- 4 ㉔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뒤선 미래 시제가 쓰였다. '다음 주'와 'ㄹ-겠-'을 통해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㉔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뒤선 미래 시제로, '잠시 후'와 'ㄹ-겠-'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㉔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선 과거 시제로, '그해', 'ㄹ-었-'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㉔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 일치하는 현재 시제로, '지금', 'ㄹ-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㉔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선 과거 시제로, '어제'와 'ㄹ-더-'를 통해 알 수 있다.

- 5 **서술형** 주어가 동작이나 행동을 직접 하는 것은 주동 표현이고,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사동 표현이다. 또한 주어가 동작이나 행동을 제함으로 하는 것은 능동 표현이고,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동을 당하는 것은 피동 표현이다.

- 6 ㉔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동을 제함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 ㉔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동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 7 '사육시키고'와 '사육하게 하고'는 각각 '-시키다'와 '-게 하다'가 결합된 사동 표현이다. ㉔은 주어가 주체적으로 행위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육시키고'를 '사육하고'로 고쳐야 한다.

- 8 ㉔은 농민들이 힘든 상황임을 강조하는 주동 표현인 반면, ㉔은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황사임을 강조한 사동 표현이다. 따라서 ㉔을 ㉔과 같이 바꿔 쓰면 사건의 원인을 강조할 수 있다.

- 9 '안' 부정 표현은 주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표현할 때 쓰이고, '못' 부정 표현은 주어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적인 원인에 의한 부정을 표현할 때 쓰이므로, '안' 부정 표현인 <보기>를 '못' 부정 표현으로 바꾸면 의미가 변한다.

- 10 직·간접 조사 방법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한 자료 중 자신의 글에 활용할 자료를 선정하는 단계는 '근거 마련하기'이다.

- 11 ㉔은 외모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는 자료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적절하지 않기에 이 글에 활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대중 매체와 상업주의가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주범임을 주장하고 있는 (다)에, ②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품이나 능력 등 내면의 아름다움이라 주장하고 있는 (라)에, ③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 외모가 또 다른 차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에, ④ 외모 지상주의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가)에 각각 활용되었다.

- 12 (나)~(라)에서 글쓴이는 기업에서 사원 채용 시 외모가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성공을 거둔 인물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⑤는 서론 부분인 (가)에 사용되었다. ③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④ 글쓴이의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3 **서술형** 외모에 집착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 글쓴이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순간적인 외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14 주장하는 글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 주장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정하기 위해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이를 글에 드러낼 필요는 없다.

- 15 (가)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논제를 제시한(가) 다음, 토론자의 각 발언 시간과 찬반 양측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㉔). 또한 (㉔)에서 사회자는 두 번째 입론의 쟁점을 확인하면서 각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㉔).

- 16 사형 집행을 통해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반대 측은 1996년 헌법 재판소의 합헌 판결과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함을 근거로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법으로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7 찬성 측과 달리 반대 측 토론자들은 "아니, 그게 아니죠.", "왜 모르시죠?"와 같이 감정적인 발언을 하며 상대 토론자에 대해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 18 (가)에서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광고는 광고의 목적이나 사용 매체에 상관없이 모든 광고에서 두루 사용된다고 하였다.

- 19 **서술형** 제시된 광고는 '이사'라는 말과 숫자 '2', '4'의 발음이 같다는 점을 이용한 언어유희적 표현과 동일한 문구와 전화번호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언어 표현을 강조하는 전략이 활용되었다.

- 20 (나)에서 광고는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나의 설득 전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설득 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㉔은 적절하지 않다.

- 21 (마)에서 글 읽기는 다양한 감각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여러 감각을 구체적으로 느끼기 위해 글을 읽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2 (마)에서 적극적으로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의 선택에서부터 감상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추천 도서 목록에 있다는 이유로 책을 읽는 것은 수동적인 독서 태도로 볼 수 있다.

- 23 **서술형** 글쓴이가 설명하고 있는 읽기의 즐거움에는 '삶의 즐거움, 감동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이 있는데, 이 중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과 관계 깊은 것은 '깨달음의 즐거움'이다.

- 24 독서 기행문을 작성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은 독서 기행을 수행한 후에 해야 할 일이므로 독서 기행의 준비와는 관련이 없다.

- 25 **서술형** 이 글의 글쓴이가 독서 기행을 통해 얻게 된 점은 (나),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에서 글쓴이는 이번 독서 기행을 통해 새삼 읽고 쓰는 문화의 중요성이 깊이 있게 다가왔다고 하였다.